

# 현재를 위한

한살림 청년 조합원 먹거리 인식 조사

## 답론

책임연구자  
모심과살림연구소 청년연구팀

김진아  
박주석  
배기현



## <목 차>

I. 들어가며 .....	6
II. 첫 번째 보고서 - “2030 청년조합원 먹거리 수다회” .....	8
1. 개요 .....	8
2. 주요 내용 .....	8
3. 소결 .....	12
III. 두 번째 보고서 - “한살림 20대 조합원 먹거리 인식조사” .....	13
1. 20대 조합원 먹거리 인식조사 .....	13
1) 개요 .....	13
2) 조사 내용 .....	14
3) 응답자 특성 .....	15
4) 조사 결과 .....	16
5) 소결 및 제언 .....	28
2. 20대 조합원 초점집단 인터뷰 (FGI) .....	30
1) FGI 개요 .....	30
2) FGI 주요 내용 .....	31
3) 소결 .....	48
4) 제언 .....	49
IV. 세 번째 보고서 - “고민의 확장” .....	51
1. 코로나 팬데믹 .....	51
2. 청년 .....	52
3. 노동 .....	53
4. 대학생들의 주거 .....	54
5. 젠더 .....	54
6. 한살림 .....	56
1) 청년-한살림 .....	56
2) 청년-비건 .....	59

- 7. 대안의 모색 ..... 62
  - 1) 노동의 가치 ..... 62
  - 2) 청년커뮤니티 ..... 64
- 8. 나오며 ..... 66
  - 1) 개인의 서사로 시작하는 청년 다양성 ..... 66
  - 2) 청년의 참여 보장 ..... 66
  - 3) 다시, 청년 한살림 ..... 67

## <에필로그>

- 환대와 돌봄의 공간으로서 한살림과 청년 ..... 71
- 청년의 '이중성'에 대하여 ..... 73

## <표 차례>

- <표 1> 수다회 참석자 정보 ..... 4
- <표 2> 청년조합원 먹거리 인식조사 개요 ..... 9
- <표 3> 한살림 20대 조합원 먹거리 인식조사 문항 구성 ..... 10
- <표 4> 인식조사 설문응답 현황 ..... 11
- <표 5> 한살림 조합원 가입 계기 ..... 12
- <표 6> 한살림 조합원 가입 계기(성별 비교) ..... 13
- <표 7> 한살림 관련 경험 ..... 14
- <표 8> 먹거리 관심 계기 ..... 15
- <표 9> 먹거리 관심 계기(성별 비교) ..... 16
- <표 10> 먹거리 선택 기준(전체 응답) ..... 16
- <표 11> 먹거리 선택 기준 중요도 (성별 비교) ..... 17

<표 12> 사회적 의제 중요도(전체 응답) .....	18
<표 13> 사회적 의제 중요도(성별 비교) .....	18
<표 14> 먹거리 관련 문제 인식 .....	19
<표 15> 먹거리 관련 문제 인식(가입기간 비교) .....	20
<표 16> 공감하는 한살림 먹거리 가치 .....	21
<표 17> 한살림이 추구해야 할 먹거리 .....	21
<표 18> 한살림 먹거리 운동이 고려해야 할 가치 .....	22
<표 19> 한살림 먹거리 운동이 고려해야 할 가치(가입기간별) .....	22
<표 20> 20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 .....	23
<표 21> FGI 회차 진행 정보 .....	27

## <그림 차례>

<그림 1> 먹거리 수다회 모집 웹자보 .....	4
<그림 2> 한살림 조합원 가입 계기 .....	12
<그림 3> 한살림 관련 경험 .....	14
<그림 4> 먹거리 관심 계기 .....	15
<그림 5> 먹거리 선택 기준(전체 응답) .....	17
<그림 6> 사회적 의제 중요도(전체 응답) .....	18
<그림 7> 먹거리 관련 문제 인식 .....	20
<그림 8> 공감하는 한살림 먹거리 가치 .....	21
<그림 9> 한살림이 추구해야 할 먹거리 .....	21
<그림 10> 한살림 먹거리 운동이 고려해야 할 가치 .....	22
<그림 11> 20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 .....	23

## I. 들어가며

2020년 모심과살림연구소는 청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회가 규정하는 보편적인 청년의 삶이 아닌, ‘나’의 이야기를 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청년 5명이 모여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임의 이름을 ‘미담’이라고 지었다. 미래를 위한 담론. 각자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모임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의제들도 마주하게 되었다. 노동, 페미니즘, 주거, 농업, 먹거리 등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삶을 통해 체감하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청년 먹거리 관련 연구’를 제안 받았다.

청년 먹거리 연구를 시작하려고 보니 선행 연구도 많지 않고, 그나마 있는 것은 소비자 관점에서만 다루어지거나, 청년들의 먹거리 빈곤 이슈를 쟁점화하는 조사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기성 사회가 울타리 쳐놓은 먹거리 담론을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먹거리에 있어서 건강과 안전을 우선 순위로 고려하지 않는 청년에 대해서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잘못된 먹거리 인식을 가진 존재로 규정된다.

연구팀은 이 점에 주목하여 청년들의 삶의 문제가 기존 먹거리 운동 단체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데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지금까지 한살림에서는 청년조합원의 이야기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먹거리 관련 의제활동에서도 청년들은 주로 지원 대상으로만 고려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연구의 질문은 ‘한살림 20대 청년조합원들의 먹거리 인식과 경험이 어떤 삶의 맥락에서 형성되었는가?’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 어떠한 전제된 가정 없이, 최대한 열린 태도로 이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자 했다.

현재 한살림에는 약 4,000여명의 20대 조합원이 있다. 한살림에서 청년조합원들의 먹거리 인식과 경험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을까? 그동안 한살림에서 진행한 청년 먹거리 관련 정책과 사업은 주로 ‘지원’과 ‘교육’ 사업이었다. 단일한 교육과 지원의 대상으로서 청년들의 삶은 ‘보편적’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그 ‘보편’은 보편적이지 않다. 그 ‘청년’ 안에 포함되는 이들은 한정적이다. 청년 정체성은 오히려 수많은 청년들의 삶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기에 이 정체성에 따른 정책이나 사업은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 데에는 한계가 발생한다.

과연 한살림은 4,000여 청년조합원 가운데 몇 명의 삶과 맞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내부에 한살림의 기존 먹거리 가치를 수용하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으로 나누어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한살림 내에서 20대 조합원은 실무자, 생산자, 소비자, 활동가로 존재해 왔으나 비가시화되었다.

청년은 항상 미래 세대로서 규정되어왔다. 지속가능한 운동을 논의할 때 청년은 재생산의 대상으로만 등장하고, 지원 사업을 논의할 때 청년은 취업, 결혼 등 미래지향적 목표를 위한 대상으로만 다루어져왔다. 미래 세대로서의 규정은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과 담론을 무시하는 효과를 낳았다. 한살림은 청년을 미래 세대로서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이 요구하는

변화를 미래의 일로 미루었다. 현재를 위한 담론은 이에 대한 반동이다. 반역이며 번역의 과정이다. 이 보고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차별·억압적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이고 이론적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며, 이는 한살림 안에서 청년의 언어를 사회화하는 반역적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현재를 위한 담론’ 보고서를 통해 한살림의 현재와 청년의 현재가 적극적으로 충돌하여 관계가 형성되고, 억압적 요소가 해체됨으로서 각각의 삶과 정체성이 재구성되기를 바란다.

이 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는 2021년 7월 16일 진행된 ‘한살림 2030 청년조합원 먹거리 수다회’ 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두 번째는 ‘한살림 20대 조합원 먹거리 인식조사와 FGI 결과’ 이다. 먹거리 인식조사는 2021년 8~9월에 걸쳐 SMS 수신에 동의한 한살림 20대 조합원 4,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청년들의 먹거리 경험과 한살림과의 관계, 한살림 가치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FGI는 이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온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기후위기와 비건’, ‘성불평등과 인권’, ‘청년과 지역활동’ 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시 확장하여 5회에 걸쳐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이다. 세 번째는 ‘고민의 확장’ 이라는 보고서인데, 앞선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살림 운동에서 청년들이 비가시화 된 이유를 분석하고, 청년들의 삶의 문제와 한살림운동이 만나는 지점에서, 한살림의 청년 조합원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한살림에서 조명하지 않은 청년조합원들의 먹거리 담론을 살펴보고, 이 담론을 수용하지 못한 한살림의 한계는 무엇인지, 청년조합원이 한살림 내에서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선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 연구는 이 자체로 완결적이지 않다. 연구 내용에 대한 청년조합원들의 평가와 토론, 그리고 실천들이 수행될 때 비로소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한살림에서 더 많은 청년들의 삶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시작점을 함께 열어준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II. 첫 번째 보고서 - “2030 청년조합원 먹거리 수다회”

### 1. 개요

청년먹거리연구팀은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2030 청년조합원들(생산자/소비자) 중 ‘먹거리’에 관심 있는 이들을 공개 모집하여 ‘먹거리 수다회’를 진행했다.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온라인 화상회의로 총 9명의 청년조합원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먹거리 수다회에 참여한 청년조합원들은 수동적 존재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먹거리 인식과 경험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식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림 1> 먹거리 수다회 모집 웹자보



<표 1> 수다회 참석자 정보

참석자	나이
가	20~25세
나	26~30세
다	26~30세
라	31~35세
마	26~30세
바	20~25세
사	26~30세
아	20~25세
자	26~30세

### 2. 주요 내용

#### 1)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수다회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먼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된 다양한 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각자 군부대에서의 식사 경험, 학교 내 동아리에서의 식사 경험, 농활, 수업 등 먹거리 자체를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 상황을 나누었다.

“군대 보급병으로 있었는데, 배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투 식량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많았어요. 우리가 먹는 것이 거저먹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마, 26~30세)

“대학생 때 혼자 1인 가구로 독립하면서 내 한 몸 건사해서 학교 다니기도 바쁘다보니까, 편의

점에서 밥을 때운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몸이 안 좋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공동체 밥상 같은 걸 하기도 했었어요.**"(다, 26~30세)

또 개인적 경험 외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먹거리 문제를 다시 이해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대학생 때 농활의 경험을 통해 먹거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양 시간에 **식량자급률, GMO 등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서, 그 때부터 먹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다, 26~30세)

"예전에는 먹을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협 같은 곳에서는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보여서 매력을 느꼈어요.** 몸이 좋아지는 것은 모르겠지만, **생각이 건강해 진다는 느낌을 받아요.**"(사, 26~30세)

"먹거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환경사회학 공부를 하면서 농약, 몬산토 등 대기업이 먹거리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된 순간부터였어요. 모든 먹거리가 땅에서, 밭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농사짓고 살아왔는데, **왜 오늘날에는 농사는 일부만 짓고 작물을 기르지 않고 모두 돈을 내고 사먹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사 먹기 위해 돈을 버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 현재 **인간의 생활 방식 자체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나, 26~30세)

먹거리를 하나의 문화로 이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비건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존재를 생각하는 다양한 먹거리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먹었고요."(아, 20~25세)

"좋아하는 카페에서 초코쿠키를 보고, 어쩐지 **먹거리 소비를 통해 위안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어요."(아, 20~25세)

현재 생산자로 활동하는 청년조합원은 친환경 농사를 통해 먹거리의 생산과정을 알게 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커졌고, 소비자들과 '생산과정을 공유' 하는 문제로 고민이 확장되고 있었다.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친환경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농약 중 풀약, 제초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풀이 다 타 죽거든요. 드시는 분들은 완성된 것만 보니까 모르시지만 농민들은 그 과정을 다 보고 있잖아요. 성장을 촉진하는 비대제를 쓴다거나, 착색제를 쓴다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소비자들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라, 31~35세)

## 2) 먹거리의 안전과 건강

참여자들은 다양한 개인 경험을 통해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먹거리 안전과 건강 문제를 개인의 차원에서 관계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이 인식 속에는 먹거리 건강과 안전성에 관한 새로운 관점, 육식에 대한 생각, 다국적기업의 독점체제, 나아가 먹거리 문제에 대한 고민 등이 담겨있었다.

“처음에는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속이 불편하다는 느낌 때문에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둘러보면 식당과 마트가 많아서 풍족해 보이지만, 식품업계 입장에서 부가 가치 창출과 자극적인 것에만 편향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고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동물들이 겪어야 하는 경험, 과일을 당도로만 평가하는 상황, 특허를 독점한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산이 되지 않는 종자와 그에 맞는 농약을 끼워 파는 것 등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자, 26~30세)

“처음에는 건강함을 지키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자는 생각으로 먹거리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유기농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유기’가 단순히 농약을 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다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가치를 지키기 위해 품을 들이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산자를 생각해보면, 그럼 소비자도 연결되어 어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겠구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연결되는 관계 속에서 고민할 때, 더불어 건강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가, 20~25세)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점도 언급되었다. 일상에서 개인 스스로 먹거리 가치를 실천하기 어려운 점, 먹거리 편차가 드러나고 있는 점도 지적되었다.

“한살림 매장의 부재, 함께 먹을 이틀 혹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건강한 먹거리를 챙기기 어렵다면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요.** 먹거리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개인적으로도 다른 친구 혹은 가족과 지낼 때와 혼자 살 때는 같은 여유를 가지고 있어도 먹거리 편차는 심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바, 20~25세)

“먹거리는 주거와 직접 관련이 있어요. 혼자 자취하는 친구들, 쉐어하우스로 4명 정도가 같이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하니까 레시피를 찾고 공유를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과 살아서 장을 보거나 요리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친구들에게 얻은 레시피를 듣고 먹는 것이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직접 해먹는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의 능력이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는데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아, 20~25세)

### 3) 먹거리 활동

한 참여자는 우리는 서로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먹거리 생산 과정에 있어서도 한 쪽의 선택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의미이며, 그런 차원에서 먹거리도 누군가를 생각한 먹거리가 ‘건강한’ 먹거리라고 정의한다.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유기농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의 ‘유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농약 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들과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이것이 ‘건강함’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겠구나 싶었어요.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 품을 들이고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유기농이라는 농법과 가치에 품을 들이는 만큼 소비자도 어떤 불편을 감수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더불어 건강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생산지에 가서 환경을 직접 보고 경험하니, 훨씬 더 삶의 이야기로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편리한 쪽을 선택했을 때,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삶으로 들어오는 불편함을 같이 직면하면서 감수할 수 있도록 ‘불편함’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가, 20~25세)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먹거리와 관련된 각자의 구체적인 활동 경험을 소개했다. 자신들의 인식과 활동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은 먹거리 의제 확산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내 몸 건강하자고 먹는 먹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것이 이상했어요. 먹거리가 나에게 오기까지 다양한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알아보자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 음식 학회 모임을 만들었어요. ‘고기학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고기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먹게 되었는지 공부했어요.”(사, 26~30세)

“식문화에 관해 실험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히 먹고 살 수 있을까를 실험하는데, 저희가 정의하는 건강한 먹거리가 그냥 ‘나만 배부르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을 잘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로 발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이 잘 먹고 사는 것에 집중했다면, 먹거리라는 것이 환경이나 생산하는 사람들의 삶을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먹거리와 관련된 삶을 알아보고 그 삶을 연결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가, 20~25세)

“시골에 살 때는 밥 먹었는지 질문하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도시에서는 서로 문 닫으면 누구 인지도 모르고, 고독사도 많고 그런 것이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먹는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나,

26~30세)

“공동체 밥상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유는 시간과 돈의 문제였어요. 먹거리에 시간과 노동을 투자할 만큼 여유가 없다보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같이 해먹으면 부담이 덜 하겠다 생각했지만, 시간과 돈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회복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두루뭉술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26~30세)

### 3. 소결

먹거리 수다회에 참석한 한살림 청년조합원들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먹거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먹거리 문제와 사회적 의제가 연결되는 지점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먹거리 담론의 형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꼽았다. 먹거리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점에서 수다회 참여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조직하고 있다.

이번 수다회를 통해 한살림은 왜 그런 공동체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지,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두 번째 보고서 “한살림 20대 조합원 먹거리 인식조사와 FGI” 를 기획, 작성하였다.

### Ⅲ. 두 번째 보고서 - “한살림 20대 조합원 먹거리 인식조사”

청년먹거리연구팀은 한살림 청년조합원들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심, 향후 한살림운동에서 청년 세대의 참여와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파악하고자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소수의 조합원 혹은 청년과의 인터뷰로는 알기 어려운 먹거리와 사회 의제에 대한 관심을 전체 청년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찾고자 했다.

먼저, 청년의 연령 범주는 20대로 한정했다. <2018 전국한살림조합원의식조사 결과분석보고서>(36쪽, 그림2. 이하 ‘2018 의식조사’)에 따르면 30대 이상은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고 전일근무, 시간제, 자영업의 비율이 높아지며, 자녀와 가족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이 조합원 가입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30대 이상은 사실상 세대주로서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3인 이하 가족의 비율이 28.4%로, 그 나머지는 4인 이상의 가족과 생활), 이에 비해 20대의 경우 미혼, 1인가구 혹은 가족 중 자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대와 30대 조합원의 한살림 가입 동기와 활동 참여 형태,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심, 반응 특성이 구별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대 조합원 대상으로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언급한 2018년 의식조사에 따르면, 20대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중 0.8%로, 2014년에 비해 모집단 비율이 0.4% 적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1년 8월 현재 전국 한살림 20대 조합원으로 SMS 수신에 동의한 4,157명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발송했고, 회신된 128명(3.12%)의 유효 답변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은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 순차 진행했다. FGI 참여자는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인터뷰에 동의한 청년조합원들이다. FGI 내용은 기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온 중심 주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1. 20대 조합원 먹거리 인식조사

##### 1) 개요

<표 2> 청년조합원 먹거리 인식조사 개요

조사 명	2021년 한살림 20대 청년 조합원 먹거리 인식조사
조사 목적	<p>전국 한살림 20대 조합원들의 먹거리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첫 조사로서,</p> <p>① 20대 조합원들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 현황을 조사하고</p> <p>② 청년 세대의 삶의 고민과 먹거리 의제가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냄으로써, 먹거리 운동의 새로운 역할 제안</p> <p>③ 향후 한살림운동에 청년 세대의 유입과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당면한 과제와 정책 제언</p>

조사대상	2021년 8월 23일 기준 전국 한살림 20대 조합원 (SMS 수신 동의자)
조사 기간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5일 일요일 18시
조사 방식	① 한살림사업연합 정보시스템본부의 협조를 얻어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를 진행하여 조사 실시 ② 서베이 톱키를 활용한 온라인 응답 수집
조사 응답률	3.12% (4,157명 중 유효 답변 128명)
조사 주체	모심과살림연구소 청년 먹거리 연구팀

## 2) 조사 내용

한살림 20대 조합원 먹거리 인식조사 내용은 ‘먹거리에 대한 인식’, ‘먹거리와 사회적 의제의 연결에 대한 인식’, ‘한살림 먹거리 운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먹거리 운동 확장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한 인식’ 이라는 4개의 큰 주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표 3>와 같다. 세부 문항은 <2018 의식조사>, <2010 한살림 물품에 대한 조합원 의식 조사>의 문항을 참고하여 설계했다.

<표 3> 한살림 20대 조합원 먹거리 인식조사 문항 구성

분류	문항	세부 내용
I. 한살림 경험	1-5	기본 정보
	6	한살림 조합원이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7	한살림에 대한 경험은 무엇이 있나요?
II. 먹거리에 대한 인식	8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9	먹거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III. 먹거리와 사회적 의제의 연결에 대한 인식	10	사회 의제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 나열
	11	먹거리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IV. 한살림 먹거리 운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12	한살림의 먹거리 가치 중 가장 공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13	한살림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먹거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4	한살림의 먹거리 운동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V. 먹거리 운동 확장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한 인식	15	한살림의 먹거리 운동이 20대 청년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력해야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16	현재 한살림에서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먹거리와 관련해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는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요?
	17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나 제안사항

### 3) 응답자 특성

설문 대상은 전체 20대 한살림 조합원 중 SMS 수신에 동의한 이들로 4,157명이다. 2021년 9월 6일 기준 최종 회수된 응답자는 모두 153명으로, 응답을 남긴 전체 한살림 20대 청년 조합원 중 응답 결과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와 1990년대 이전 출생자를 제외하고 최종 확인된 분석 대상은 모두 128명이다. 따라서 최종 설문 응답률은 3.12%이다.

응답자 중 20대 후반(2021년 기준 27세 이상)은 68.4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익이 있어 경제적 구매력이 있거나 1인 가구 등 독립 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은 여성이 82.03%, 남성이 14.04%, 기타가 2.96%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 28.15%, 1~3년 미만이 31.11%, 3년 이상이 33.33%. 잘 모르겠다 7.41%였다. 소속 생협 지역은 서울이 41.7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남이 8.96%로 많았다.

<표 4> 인식조사 설문응답 현황

	구분	빈도	비율
태어난 해	1990	2	1.54
	1992	3	2.31
	1993	43	33.08
	1994	23	17.69
	1995	23	17.69
	1996	10	7.69
	1997	8	6.15
	1998	6	4.62
	1999	6	4.62
	2000	2	1.54
	2001	3	2.31
	2002	1	0.77
	성별	여성	105
남성		19	14.84
기타		4	2.96
가입기간	1년 미만	38	28.15
	1년 이상	42	31.11
	3년 이상	31	22.96
	5년 이상	14	10.37
	잘 모르겠다	10	7.41

소속 조합	강원영동	0	0
	경기남부	7	5.22
	경기동부	6	4.48
	경기서남부	5	3.73
	경남	12	8.96
	경북동부	1	0.75
	경북북부	2	1.49
	경주	2	1.49
	고양파주	5	3.73
	광주	2	1.49
	대구	3	2.24
	대전	3	2.24
	부산	1	0.75
	서울	56	41.79
	성남용인	7	5.22
	수원	1	0.75
	울산	2	1.49
	원주	1	0.75
	전남	0	0
	전북	5	3.73
	제주	1	0.75
	천안아산	6	4.48
	청주	2	1.49
	춘천	2	1.49
	충주제천	2	1.49
	합계	128	100

#### 4)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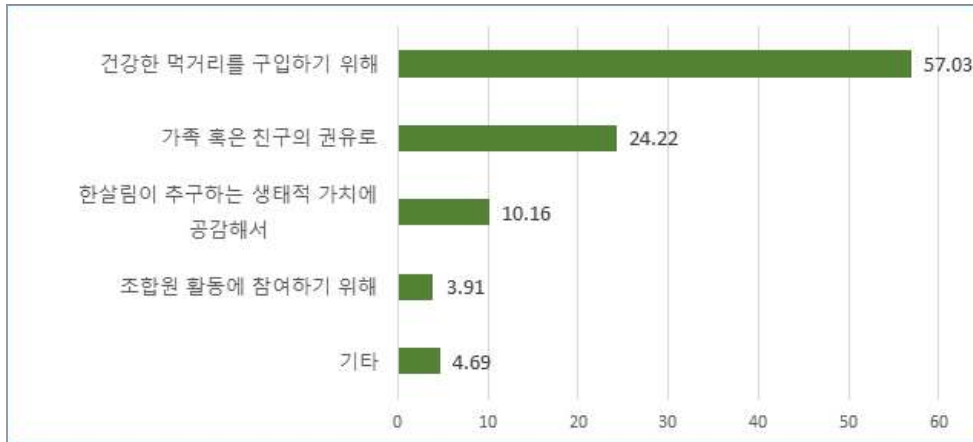
##### 가) 한살림 조합원 가입 계기

〈표 5〉 한살림 조합원 가입 계기

항목	응답 수 (비율)
<b>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b>	<b>73 (57.03)</b>
가죽 혹은 친구의 권유로	31 (24.22)
한살림이 추구하는 생태적 가치에 공감해서	13 (10.16)
조합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5 (3.91)
기타	6 (4.69)
<b>합계</b>	<b>128 (100)</b>

전체 응답자 중 57.03%의 응답자가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한살림에 가입했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가죽 혹은 친구의 권유로’ 가입한 이들이 24.22%, 이어 ‘한살림이 추구하는 생태적 가치에 공감해서(10.16%)’, ‘조합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3.91%)’ 라는 순

<그림 2> 한살림 조합원 가입 계기



으로 응답했다.

2018년 의식조사에서 20대 조합원은 ‘아는 사람의 소개’가 78.6%, ‘한살림 매장을 보고’ 가입한 이들이 23.3%, ‘다른 생협을 이용하다가 한살림을 알게 되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28.3%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외부 단체 또는 시민 운영 온라인매체’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이 23.3%였다.

이에 비해 이번 조사는, 2018 의식조사와 문항이 달랐지만,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가입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청년조합원들의 가입 계기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비건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2명)’, ‘인턴십 및 구직 활동을 통해 알게 됨(3명)’이 있었다. 2018 의식조사에서는 조합원이 새롭게 공급하길 바라는 물품을 묻는 문항에 25~29세 조합원 중 26%가 ‘채식 식단용 물품’이라고 응답해 이번 조사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6> 한살림 조합원 가입 계기(성별 비교)

항목	여성 응답 수 (비율, %)	남성 응답 수 (비율, %)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64(60.95)	8(42.11)
한살림이 추구하는 생태적 가치에 공감해서	8(7.62)	5(26.32)
조합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1(0.95)	3(15.79)
가족 혹은 친구의 권유로	28(26.67)	2(10.53)
기타	4(3.81)	1(5.26)
<b>총합계</b>	<b>105(100)</b>	<b>19(100)</b>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라고 응답한 경우가 양성 모두 가장 높았으나 여성 응답 비율이 60.95%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반면 남성은 ‘한살림의 생태적 가치에 공감해서’라는 응답(2위)이 26.32%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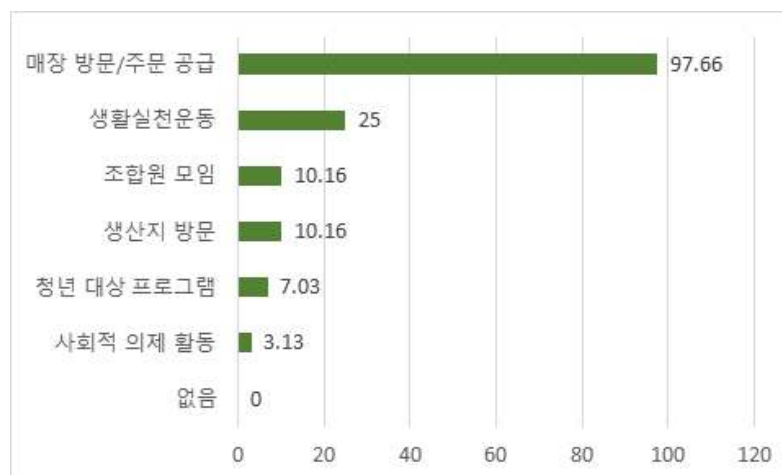
## 나) 한살림 관련 경험

한살림과 관련된 경험을 모두 선택하는 문항(복수 응답)에선 ‘매장 방문/공급 주문’이 97.66%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매장 및 물품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 뒤로 생활실천운동이 25%, ‘조합원 모임’과 ‘생산지 방문’이 10.16%, 청년 대상 프로그램이 7.03%로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전체 조합원 대상 의식조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 중 한살림 캠페인이나 모임 등의 활동에 한번 이상 참여한 사람이 약 15.8%였다. 해당 조사에서 연령별 한살림 생활실천운동 전체 참여율은 나타나 있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이번 조사에서 39.5%의 응답자가 물품 이용 외에 다른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한살림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참여하고자 하는 20대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 평균 보다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7> 한살림 관련 경험

항목	응답 수(비율)
매장 방문/공급 주문	125(97.66)
생활실천운동	32(25)
조합원 모임	13(10.16)
생산지 방문	13(10.16)
청년 대상 프로그램	9(7.03)
사회적 의제 활동	4(3.13)
없음	0(0)

<그림 3> 한살림 관련 경험



## 다) 먹거리 관심 계기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는 ‘건강 문제’가 26.56%로 가장 높았으며, ‘기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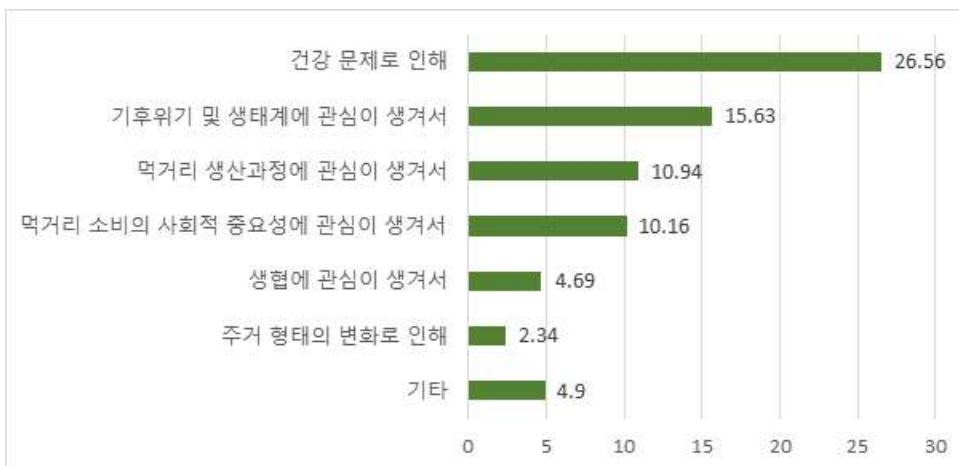
및 생태계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가 15.63%로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먹거리 생산과정에 관심이 생겨서(10.94%)', '먹거리 소비의 사회적 중요성에 관심이 생겨서(10.16%)', '생협에 관심이 생겨서(4.69%)'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채식을 시작하게 된 이후로(2명)', '원래 관심이 있었으나 요리 관련 수업에서 강사님의 소개로(1명)',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2명)' 등의 의견이 있었다.

채식 물품 카테고리가 생기고 채식 물품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한살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먹거리 소비 및 생산과정에 대한 관심도 합쳐서 약 20%로 먹거리를 단순한 상품으로만 보지 않고 생산과 소비의 의미, 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8> 먹거리 관심 계기

항목	응답 수(비율)
건강 문제로 인해	34(26.56)
기후위기 및 생태계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20(15.63)
먹거리 생산과정에 관심이 생겨서	14(10.94)
먹거리 소비의 사회적 중요성에 관심이 생겨서	13(10.16)
생협에 관심이 생겨서	6(4.69)
주거 형태의 변화로 인해	3(2.34)
기타	6(4.69)
<b>합계</b>	<b>96 (100)</b>

<그림 4> 먹거리 관심 계기



먹거리 관심 계기를 묻는 문항에서는 6번 문항 '한살림 가입 계기'에서 여성 응답자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를 많이 선택했던 것처럼 '건강 문제로 인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8%로 가장 높았고, '기후위기 및 생태계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라는 응답이

약 17%였다. 성별 응답을 비교하면, 20대 여성 조합원은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높고, 남성은 ‘기후위기 및 생태계에 관한 관심’이 먹거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표 9> 먹거리 관심 계기(성별 비교)

항목	여성 응답 수 (비율, %)	남성 응답 수 (비율, %)
건강 문제로 인해	31(38.27)	3(21.43)
기후위기 및 생태계에 관심이 생겨서	14(17.28)	5(35.71)
생협에 관심이 생겨서	5(6.17)	1(7.14)
먹거리 소비의 사회적 중요성에 관심이 생겨서	10(12.35)	3(21.43)
먹거리 생산과정에 관심이 생겨서	12(14.81)	2(14.29)
주거 형태의 변화로 인해	3(3.70)	0
기타	6(7.41)	0
<b>총합계</b>	<b>81(100)</b>	<b>14(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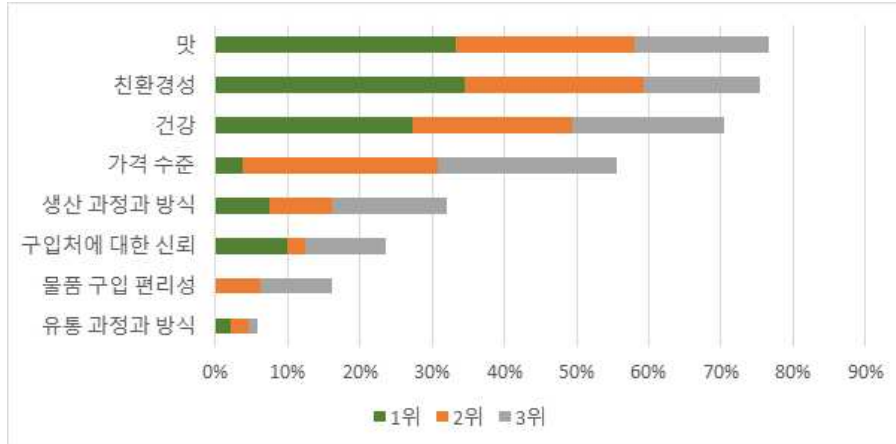
#### 라) 먹거리 선택 기준

먹거리를 선택할 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1~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했을 때, 1순위로 ‘맛’ (33.33%)과 ‘친환경성’ (34.57%)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 (27.16%)이 높게 나왔다. 2순위에서는 ‘가격 수준’이 27.16%로 가장 많은 조합원이 택했고, ‘건강’을 22.22%가 선택했다. ‘물품 구입 편리성’ 보다는 ‘구입처에 대한 신뢰’, ‘생산 과정과 방식’, ‘유통 과정과 방식’을 택한 이들이 더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유통 과정과 방식(5명)’ 보다 ‘생산 과정과 방식(26명)’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

<표 10> 먹거리 선택 기준(전체 응답)

항목	1 순위	2 순위	3 순위	합계
맛	27(33.33)	20(24.69)	15(18.52)	62(76.54)
친환경성	28(34.57)	20(24.69)	13(16.05)	61(75.31)
가격 수준	3(3.70)	22(27.16)	20(24.69)	45(55.56)
건강	22(27.16)	18(22.22)	17(20.99)	57(70.37)
물품 구입 편리성	0	5(6.17)	8(9.88)	13(16.05)
구입처에 대한 신뢰	8(9.88)	2(2.47)	9(11.11)	19(23.46)
생산 과정과 방식	6(7.41)	7(8.64)	13(16.05)	26(32.10)
유통 과정과 방식	2(2.47)	2(2.47)	1(1.23)	5(6.17)

〈그림 5〉 먹거리 선택 기준(전체 응답)



〈표 11〉 먹거리 선택 기준 중요도 (성별 비교)

항목 (각 전체값 대비 비율, %)	1 순위		2 순위		3 순위		합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맛	37.04	22.22	18.52	22.22	16.05	11.11	71.60	55.56
친환경성	29.63	16.67	20.99	16.67	14.81	5.56	65.43	38.89
가격 수준	3.70	0.0	23.46	16.67	19.75	22.22	46.91	38.89
건강	22.22	22.22	19.75	11.11	17.28	16.67	59.26	50.00
물품 구입 편리성	0.0	0.0	4.94	0.0	7.41	0.0	12.35	0.0
구입처에 대한 신뢰	8.64	5.56	2.47	0.0	8.64	11.11	19.75	16.67
생산 과정과 방식	4.94	11.11	8.64	0.0	14.81	5.56	28.40	16.67
유통 과정과 방식	2.47	0.0	1.23	5.56	1.23	0.0	4.94	5.56

〈표 11〉은 먹거리 선택 시 가치의 중요도 응답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수치는 각각 전체 표본 수 대비 성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먹거리 선택 기준에 대한 남성과 여성 응답을 비교하면, 모두 ‘맛’ 과 ‘친환경성’, ‘건강’ 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여성 응답자 중에는 1순위로 ‘구입처에 대한 신뢰’ (8.64%), ‘생산 과정과 방식(4.94%)’, ‘유통 과정과 방식(2.47%)’ 을 택한 이들이 약 15%로 먹거리의 가치에 있어서 개인적 욕구 외에도 사회적 중요성도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성 또한 ‘구입처에 대한 신뢰’ 와 ‘생산 과정과 방식’ 을 1순위로 택한 이들이 3명이 있었다.

마) 사회적 의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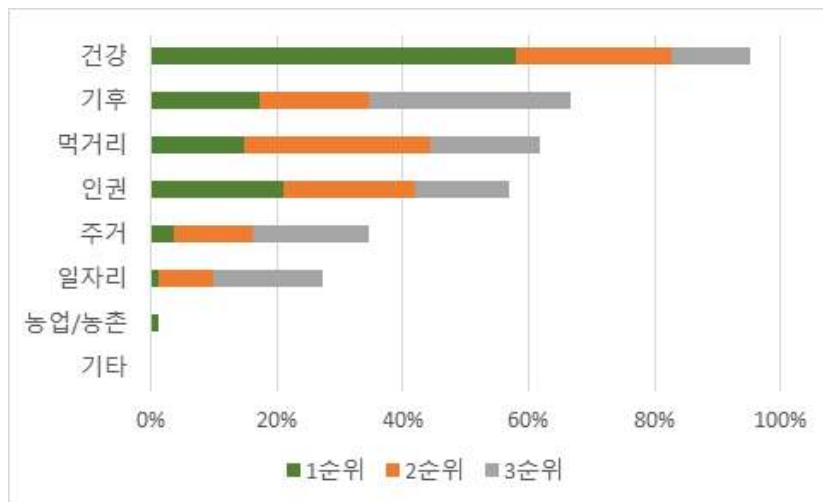
제시된 7개의 사회적 의제 중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선택하는 문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제로 ‘건강(58.02%)’ 을 선택한 사람들이 1순위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권(20.99%)’,

‘기후(17.28%)’, ‘먹거리(14.81%)’ 를 선택했다. 2순위로는 ‘먹거리’ 를 선택한 비율이 29.63%로 가장 높았다. 3순위 중에서는 ‘기후(32.10%)’ 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1, 2, 3순위를 합한 비율로 보았을 때에도 ‘건강(83.95)’ 이 가장 많았고, 기후, 먹거리, 인권, 일자리, 주거 순으로 높았다.

<표 12> 사회적 의제 중요도(전체 응답)

항목	1 순위	2 순위	3 순위	합계
인권	17(20.99)	17(20.99)	12(14.81)	37(45.68)
기후	14(17.28)	14(17.28)	<b>26(32.10)</b>	44(54.32)
일자리	1(1.23)	7(8.64)	14(17.28)	17(20.99)
건강	<b>47(58.02)</b>	20(24.69)	10(12.35)	68(83.95)
먹거리	12(14.81)	<b>24(29.63)</b>	14(17.28)	43(53.09)
주거	3(3.70)	10(12.35)	15(18.52)	24(29.63)
농업/농촌	1(1.23)	0	0	9(11.11)
기타	0	0	0	1(1.23)

<그림 6> 사회적 의제 중요도(전체 응답)



<표 13> 사회적 의제 중요도(성별 비교)

항목 (각 전체값 대비 비율, %)	1 순위		2 순위		3 순위		합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인권	16.05	3.70	17.28	3.70	12.35	2.47	45.68	9.88
기후	12.35	<b>12.35</b>	13.58	13.58	28.40	28.40	54.32	54.32
일자리	1.23	0.00	4.94	3.70	14.81	2.47	20.99	6.17
건강	<b>53.09</b>	4.94	<b>20.99</b>	4.70	9.88	2.47	83.95	11.11
먹거리	11.11	3.70	28.40	1.23	13.58	3.70	53.09	8.64

주거	3.70	0.0	11.11	1.23	14.81	2.47	29.63	3.70
농업/농촌	1.23	0.0	3.70	1.23	6.71	0.0	11.11	1.23
기타	1.23	1.23	0.0	0.0	0.0	0.0	1.23	1.23

위 <표 13>은 같은 문항에 대해 남성과 여성 응답을 비교한 것이다.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전체 응답은 여성 응답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 중에는 1순위로 ‘건강’을 가장 많이 택했으며, 2순위로는 ‘건강’과 ‘먹거리’가 많았다. 3순위로는 ‘기후’가 가장 많이 나왔으며 ‘인권’은 1, 2, 3순위에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은 1, 2, 3순위 모두 ‘기후’를 가장 많이 택했다. 여성이 ‘건강’과 ‘먹거리’를 선택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제로서 ‘건강’과 ‘먹거리’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가 여성들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바) 먹거리 관련 문제 인식

먹거리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하는 문항에서는 ‘환경 문제’가 약 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건강 위협(32.03%)’, ‘공장식 축산(21.88%)’, ‘다국적 기업의 식량 독점(10.16%)’, ‘식량주권/식량안보 위협(9.38%)’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4> 먹거리 관련 문제 인식

항목	응답 수(비율)
환경 문제	61(47.66)
건강 위협	41(32.03)
공장식 축산	28(21.88)
다국적 기업의 식량 독점	13(10.16)
식량주권/식량안보 위협	12(9.38)
먹거리 빈곤	10(7.81)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	9(7.03)
노동력 착취	6(4.69)
먹거리 보장 체계 부재	5(3.91)
성불평등 고착화	4 (3.13)
가사노동	0
기타	6(4.69)

<그림 7> 먹거리 관련 문제 인식



한편, 조합원들의 가입 기간을 3년 미만과 3년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대체로 비슷한 응답 경향을 보였지만 작은 차이도 있었다. ‘환경 문제’는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3년 이상 그룹의 경우 ‘먹거리 빈곤’과 ‘다국적 기업의 식량 독점’을 먹거리 관련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응답한 비율이 3년 미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5> 먹거리 관련 문제 인식(가입기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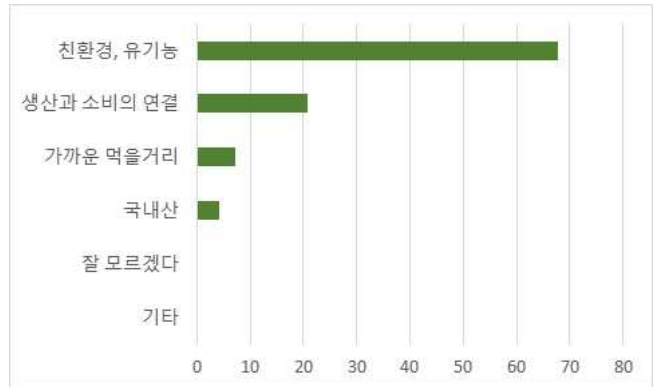
항목	3년 미만 응답(비율)	3년 이상 응답(비율)
먹거리 빈곤	3(4.76)	9(8.91)
먹거리 보장 체계 부재	4(6.35)	5(4.95)
<b>건강 위협</b>	<b>25(39.68)</b>	<b>43(42.57)</b>
다국적 기업의 식량 독점	7(11.11)	14(13.86)
<b>환경 문제</b>	<b>42(66.67)</b>	<b>64(63.37)</b>
성불평등 고착화	1(1.59)	4(3.96)
가사노동	0	0
노동력 착취	4(6.35)	6(5.94)
식량주권/식량안보 위협	9(14.29)	14(13.86)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	7(11.11)	11(10.89)
공장식 축산	16(25.4)	28(27.72)
기타	5(7.94)	6(5.94)

### 사) 한살림의 먹거리 가치 중 가장 공감하는 것

<표 16> 공감하는 한살림 먹거리 가치

항목	응답 수 (비율)
친환경, 유기농	65(67.71)
생산과 소비의 연결	20(20.83)
가까운 먹을거리	7(7.29)
국내산	4(4.17)
잘 모르겠다	0
기타	0
합계	96(100)

<그림 8> 공감하는 한살림 먹거리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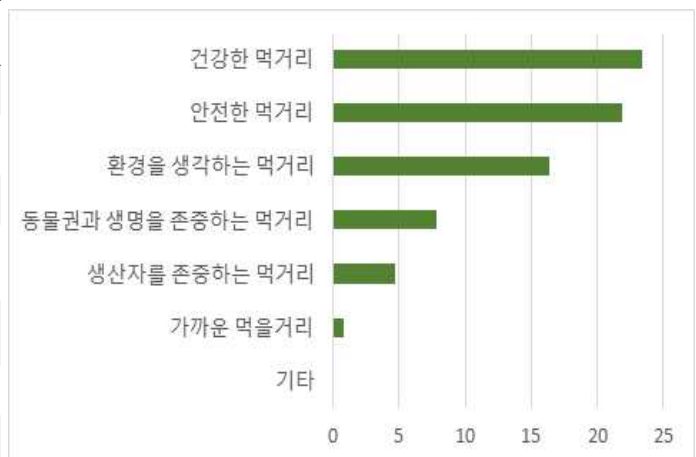
한살림의 먹거리 가치 중에 가장 공감하는 것으로는 ‘친환경, 유기농(67.71%)’이었으며, 두 번째로 ‘생산과 소비의 연결(20.83%)’이 높게 나타났다. 한살림의 가치와 방향성을 이미 알고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까운 먹을거리’와 ‘국내산’은 합하여 약 1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아) 한살림이 추구해야 할 먹거리

<표 17> 한살림이 추구해야 할 먹거리

항목	응답 수(비율)
건강한 먹거리	30(23.44)
안전한 먹거리	28(21.88)
환경을 생각하는 먹거리	21(16.41)
동물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먹거리	10(7.81)
생산자를 존중하는 먹거리	6(4.69)
가까운 먹을거리	1(0.78)
기타	0(0)

<그림 9> 한살림이 추구해야 할 먹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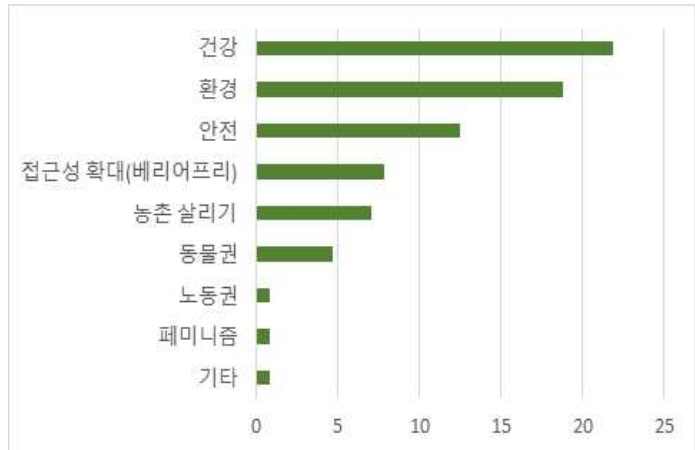
한살림이 추구해야 하는 먹거리로는 ‘건강한 먹거리’가 약 23%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생각하는 먹거리’, ‘동물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먹거리’, ‘생산자를 존중하는 먹거리’ 순으로 나타났다.

자) 한살림 먹거리 운동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

<표 18> 한살림 먹거리 운동이 고려해야 할 가치

항목	응답 수 (비율)
건강	28(21.88)
환경	24(18.75)
안전	16(12.50)
접근성 확대	10(7.81)
농촌 살리기	9(7.03)
동물권	6(4.69)
노동권	1(0.78)
페미니즘	1(0.78)
기타	1(0.78)
합계	96(100)

<그림 10> 한살림 먹거리 운동이 고려해야 할 가치



한살림 먹거리 운동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를 한 가지 선택하는 문항에서는 ‘건강’ (21.88%)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 (18.75%), ‘안전’ (12.50%), ‘접근성 확대’ (7.81%), ‘농촌살리기’ (7.03%)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문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강’ 과 ‘환경’ 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해 가입기간 별로 나누었을 때, ‘건강한 먹거리’ 와 ‘환경을 위한 먹거리’ 선택 비율이 달랐다. 3년 이상 조합원은 ‘건강(29.03%)’ 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3년 미만 조합원은 ‘환경(28.57%)’ 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먹거리와 ‘환경’ 의 관련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19> 한살림 먹거리 운동이 고려해야 할 가치(가입기간별)

항목	3년 미만 응답 수 (비율)	3년 이상 응답 수(비율)
건강	17(26.98)	9(29.03)
안전	11(17.46)	5(16.13)
환경	18(28.57)	7(22.58)
노동권	1(1.59)	0
접근성 확대 (베리어프리)	7(11.11)	3(9.68)
동물권	3(4.76)	3(9.68)
페미니즘	0	0
농촌 살리기	6(9.52)	3(9.68)
기타	0	1(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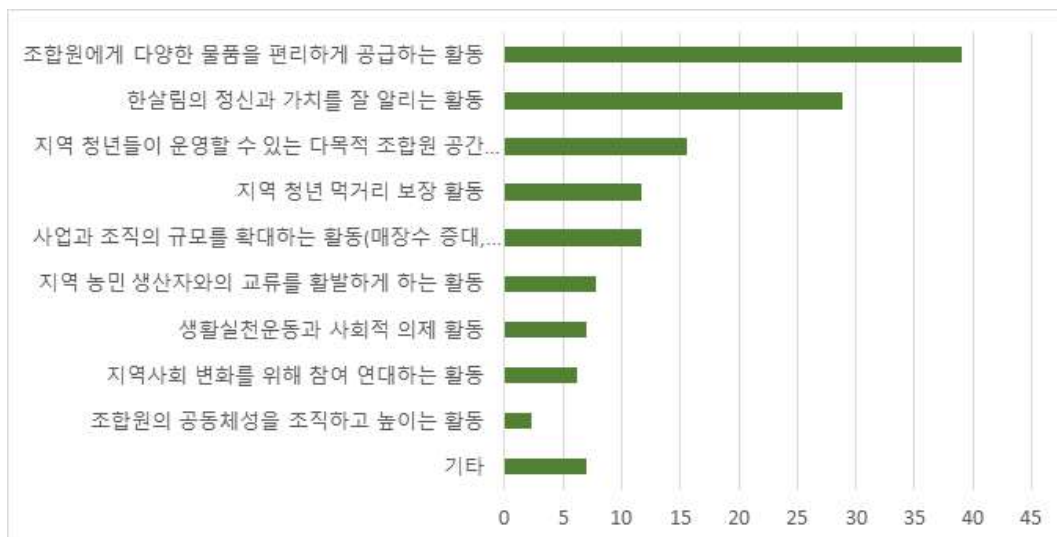
### 차) 20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

‘한살림의 먹거리 운동이 20대 청년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력해야 하는 활동’을 최대 2개 선택하는 문항에서는 ‘사업과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는 활동(매장수 증대, 조합원 확대 등) 이 29.07%’, ‘조합원에게 다양한 물품을 편리하게 공급하는 것(22.09%)’ 이 많았으며, 그 뒤로 ‘지역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11.63%)’, ‘지역 청년 먹거리 보장 활동(8.72%)’, ‘사업의 조직과 규모를 확대하는 활동(8.72%)’로 나타났다. 20대 조합원들은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으로 한살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수임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청년이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요구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표 20> 20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

항목	응답 수 (비율)
<b>조합원에게 다양한 물품을 편리하게 공급하는 활동</b>	<b>50(39.06)</b>
한살림의 정신과 가치를 잘 알리는 활동	37(28.9)
지역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조합원 공간 마련	20(15.63)
지역 청년 먹거리 보장 활동	15(11.72)
사업과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는 활동(매장수 증대, 조합원 확대 등)	15(11.72)
지역 농민 생산자와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활동	10(7.81)
생활실천운동과 사회적 의제 활동	9(7.03)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참여 연대하는 활동	8(6.25)
조합원의 공동체성을 조직하고 높이는 활동	3(2.34)
기타	9(7.03)

<그림 11> 20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



## 카) 한살림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

마지막으로 ‘한살림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를 주관식 서술형으로 질문했다.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다. 우선, 한살림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로 물품과 운영에 대한 피드백, 먹거리 운동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물품과 운영에 대한 피드백으로는 공급일과 주문일의 차이, 매장의 먹거리 재고 확인, 택배 배송의 원활함, 온라인 마케팅과 어플 개선 등 한살림 홍보 활동, 채식 물품 다양화, 포장 간소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정책이나 활동과 관련해서는 20대의 관심과 참여를 모을 수 있는 주민 대상 활동, 청년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안 의견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 청년 프로그램을 주말에 운영하는 등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 2030 청년조합원이 한살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더 다양해지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응답한 청년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활동 의제나 주제로는 비건, GMO 식품에 대한 논의, 1인 가구 수요에 맞춰 늘어나는 먹거리 소분에 대한 환경적 이슈, 윤리적인 소비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자리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 노동환경 개선, 공동체 채소 꾸러미 등 현장과 직결되는 주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 5) 소결 및 제언

### 가) 한살림 먹거리에 대한 인식

한살림 20대 청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청년 조합원들에게 먹거리와 관련된 가장 큰 화두는 ‘건강’, ‘기후위기와 생태적 가치에 대한 공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건강’은 20대 청년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한살림에 가입하게 된 계기에 대한 응답으로(문항 6),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도 이를 반영한다. 특히, 여성 응답자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한살림에 가입한 비율이 남성 조합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먹거리 선택 기준(문항 9)과 한살림이 추구해야 할 먹거리(문항 13)를 분석했을 때에도 ‘맛’과 ‘친환경성’ 다음으로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사회적 의제에서도 ‘건강’을 1순위로 선택한 이들이 많은데, 개인적 건강이 사회적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른 생활환경(사회적 연결)이 건강을 뒷받침하는 조건임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건강 또한 자신의 문제로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건강’ 다음으로 20대 조합원들은 기후위기와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후위기 및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먹거리 운동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나타나는데, 먹거리 선택 기준(문항 9)에서 ‘친환경성’을 1-2순위로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고, 한살림 먹거리 가치(문항 13)에서 ‘친환경’, ‘유기농’을 함께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 문제는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선택했으며, 먹거리 관련 문제에서도 환경 문제가 1순위로 선택되었다. 한살림의 먹거리를 ‘친환경’, ‘유기농’ 등 환경에 해를 덜

끼치는 먹거리로 인식하면서 이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대 청년조합원 응답자들은 대체로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건강 이외에도 인권, 기후, 먹거리, 주거 등 다양한 의제가 중요하며 논의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먹거리 관련 문제에서는 특히 공장식 축산을 선택한 비율이 21% 정도로 환경과 건강 위협 문제 다음으로 많이 선택되었다. 이는 한살림이 추구해야 할 먹거리(문항 13) ‘동물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먹거리’를 선택한 것과도 연결된다. 이외에도 먹거리 운동이 접근성 확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한 이들도 있었다. 이는 배리어프리<sup>1)</sup>, 가까운 매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먹거리 의제는 우리의 일상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20대 조합원 응답자들은 삶에 맞닿은 먹거리를 통해 생명 의제, 사회적 의제 등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본 설문 이후에 해당 의제들이 청년들의 삶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정 주제에 대한 FGI를 진행하였다.

#### 나) 청년 조합원 참여의 한계

20대 청년조합원들은 20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묻는 질문에서(문항 15) 편리하게 물품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지역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지역 청년 먹거리 보장 활동,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참여하고 연대하는 활동 등 적극적인 참여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응답을 통해 한살림이 참여의 공간이 된다면, 먹거리 운동에 더욱 풍성한 담론이 형성되고, 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20대 조합원 응답자들은 한살림 운동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데까지는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살림 관련 경험을 묻는 질문에(문항 7) 사회적 의제활동, 생산지 방문, 조합원 모임, 생활실천운동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도 있었지만 대부분 매장 방문 혹은 공급 주문을 통해 한살림을 이용하고 있었다. 먹거리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문항 9)에서, ‘물품 구입 편리성’ 보다는 ‘구입처에 대한 신뢰’, ‘생산 과정과 방식’, ‘유통 과정과 방식’을 택한 이들이 더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유통 과정과 방식(5명)’ 보다는 ‘생산 과정과 방식(26명)’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한살림의 먹거리 운동이 20대 청년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주력해야 하는 활동에 대한 질문에는(문항 15), 조합원에게 다양한 물품을 편리하게 공급하는 것(29.07)이 가장 많았다. 이는 실제 삶에 기반한 먹거리 담론에서는 편리성 외에 다양한 담론의 확장이 있었지만, 한살림 먹거리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편리성으로 좁혀지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의 삶에서 정립한 먹거리 담론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공간이기 보다는 물품 구입의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다) 청년 참여와 한살림운동의 확장 가능성

20대 청년조합원 응답자들은 한살림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로(문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라 함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항 16) ‘비건’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또한 ‘노동환경 개선’, ‘친환경 농법’, ‘포장재 간소화’, ‘팝업스토어’ 등의 응답으로 미루어봤을 때, 물품 생산 및 유통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의제로 먹거리 관심이 확장됨을 알 수 있었다.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한살림에서 여러 사회적 의제를 논의하는 장이 열려 직접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20대 조합원들의 이러한 관심이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한살림의 먹거리 운동에 능동적 주체로서 청년 조합원들의 참여가 더해진다면 논의와 참여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참여의 결과로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여러 위기 상황에도 도전할 수 있는데, 청년은 우리 사회의 위기(불평등, 기후위기)를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느꼈던 위기들을 한살림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풀어나감으로써, 운동의 담론을 더욱 더 확장시킬 수 있다.

## 2. 20대 조합원 초점집단 인터뷰 (FGI)

### 1) FGI 개요

청년먹거리연구팀은 인식조사를 통해 청년조합원들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과 경험, 먹거리와 사회적 의제의 연결 지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한살림 먹거리 운동의 가치와 운동 확장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연구팀은 청년조합원들의 구체적 삶을 중심으로 먹거리와 연결된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관한 심층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연구팀은 먹거리 인식조사 서술형 응답에서 먹거리 담론 확장과 관련하여 다수 등장했던 세 가지 의제인 ‘기후위기와 비건’, ‘성불평등과 인권’, ‘청년과 지역활동’을 핵심 키워드로 도출하여 응답자들의 경험과 고민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FGI 참여자는 인식조사에 참여한 조합원 중 도출된 키워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인터뷰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특정 의제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선정하였다. 3회차 인터뷰를 진행한 후 논의의 쟁점을 찾고 과제 분석을 위하여 주제별 1인의 인터뷰이와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21> FGI 회차 진행 정보

회차	일시/장소	참석자 정보		
		인터뷰이	나이	성별
1회차 '기후위기와 비건'	2021년 10월 11일 21시/ 온라인 화상회의 zoom	A	29세(93년생)	여성
		B	25세(97년생)	여성
2회차 '성불평등과 인권'	2021년 10월 18일 21시/ 온라인 화상회의 zoom	C	24세(98년생)	남성
		D	26세(96년생)	기타
3회차 '청년과 지역활동'	2021년 11월 8일 20시/ 온라인 화상회의 zoom	E	27세(95년생)	여성
		F	28세(94년생)	여성

회차	일시/장소	참석자 정보		
		인터뷰이	나이	성별

4회차 '청년의 삶과 지역'	2021년 11월 27일 20시/ 온라인 화상회의의 zoom	E	27세(95년생)	여성
5회차 '청년의 삶과 먹거리'	2021년 11월 28일 10시/ 온라인 화상회의의 zoom	B	25세(97년생)	여성
		D	26세(96년생)	기타

## 2) FGI 주요 내용

### 가) 삶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위기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조합원들은 대체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자신의 일상과 연결하면서 다양한 의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할 여러 위험 중에 먹거리 위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는 다른 이유로 채식을 시작했지만, 환경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이와 같은 문제가 채식을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응답했다. 기후위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에게 삶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에 대해 실천해나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A, 29세)

“저는 호주 산불사태 때 가장 많이 느꼈어요. ... (기후위기로 인해) 홍수가 심하다, 폭풍이 심하다, 산불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못 느꼈는데, 먹거리와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더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마트에 가면 항상 먹을 것이 있지만 5년, 10년 후에는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A, 29세)

“청년들에게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저는 동물권을 이유로 채식을 시작했지만, 환경도 저에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어요.” (B, 25세)

#### (1) 위협은 닻아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조합원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로 연결시키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불평등과 개인의 소외를 만드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언제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의 문제를 개인 차원의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개인 간의 연결성과 사회적 관계망을 인식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조합원들은 소수자나 장애인 등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사유함으로써 서로가 직면하는 위협이 닻아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소수자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교차되어있다고 느껴요.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이 결국 생존의 위협까지도 가게 된다는 것이 느껴져요. 코로나 초반에 목욕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에 제대로 된 욕조가 없을 수도 있고, 당장 뭐가 고장 났는데 고칠 수 없어서 온수를 사용할 수 없고 이런 수많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후위기 상황과도 연결된다고 느껴요. 생존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비켜져 있는 것뿐이지만, 언제든 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B, 25세)

“저는 최근에 장애 이슈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소수자인데, 성소수자 정체성이 페미니즘과 연결되고 페미니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비거니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페미니즘과 비거니즘 그리고 퀴어를 배워나가다 보니까 연결되는 지점에 장애학도 배우게 되었어요.” (D, 26세)

## (2) 규정된 청년 정체성의 한계

한 참여자는 사회에서 규정된 ‘청년’의 모습이 자신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의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외부로부터 규정된 정체성은 삶의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정한 정체성을 단일한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구성할 때 삶의 다양한 맥락들은 삭제되고, 오히려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오늘 아침에 한 기사를 봤어요. 휴대폰 조립하는 일을 청년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삼푸 뚜껑이랑 밑에 본체를 붙이는 것, 그런 작업들을 전부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에도 놀랐어요. 뉴스에서 말하는 사무직 청년들은 생각보다 높은 평균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청년들은 내 주변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E, 27세)

“청년이라고 하면 20대 남성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젠더, 퀴어 그런 건 고려되지 않고요. 요즘 따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청년은 대학생이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청년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E, 27세)

“청년의 기준이 34살이라는 것이 웃기기도 해요. 빨리 청년 범주에 들었을 때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기도 하죠. (정해진 청년 기준 안에 들었을 때) 도전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지금 뉴딜 일자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 35세부터는 중장년이라고 카테고리가 아예 달라져요.” (E, 27세)

## 나) 청년, 위태로운 삶

(1) 불안정한 노동에서 비롯되고, 먹거리에서 드러나는 삶의 소외

몇 가지 문답을 통해 청년들의 노동환경이 먹거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조합원들은 직접 먹거리를 해먹는 것이 불가능하고, 직접 해먹더라도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외식을 하더라도 제 때 식사를 챙기는 것이 더 건강한 식습관이 아닌가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요리를 해먹을 때보다 지금 근무 시간이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알바를 해서 4시쯤 끝났는데, 출퇴근 러시 없이 장보고 들어와서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집에 와서 해 먹으면 9시니까, 6시에 마치고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고 올 때가 많아요. 주변에 짬뽕집이랑 김밥집은 비건으로 맞춰주시기도 해서, 따로 해먹지 않아도 돼요. 비건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져서, 한살림을 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퇴근할 때면) **한살림 매장이 문을 닫는 시간이고,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한살림이 연희매장인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환승도 해야 하고요.” (E, 27세)

“대학교 다닐 때도 밥을 해먹긴 했는데, 직장인일 때 확실히 빈도수가 늘었어요. 채식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먹을 거 선택하는 것도 확실히 기숙사 살 때는 제약이 많았거든요. 밤에 먹는 것 자체를 휴게실에서 먹어야 한다는 등 장소 제약도 많고, 편의점에서 급하게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깐 확실히 더 많이 해먹게 되는 것 같아요. 밤에 밥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야식을 많이 해먹어요. **직장 오고 나서는 통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밥 먹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은 안 좋은 습관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해먹으려면 감수해야 하니까요. 밖에서 먹는 것이 더 건강한 식습관인가 하는 고민도 들어요. 불규칙하고 늦게 먹는 것보다 나올 수 있으니까요.**” (E, 27세)

또한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환경이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직장에서 드러내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있다. 일터에서 먹거리 선택권은 제대로 보장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먹거리 문제는 소외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는 기간제 교사로 일해요. 비정규직이라는 특성상 제가 지향하고 있는 비거니즘, 페미니즘이라는 가치와 일상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제가 지향하는 것을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까,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수준일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눈치를 받을 때도 있고, 스스로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해요. 확실한 건, **저의 일상이 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B, 25세)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해요. 그런데 **제 일이 삶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비건을 지향하고 있지만 비건인 제 생활과 일로써의 생활은 분리된 느낌이에요. **자신의 신념은 있지만 자율권은 없는 느낌이에요.**” (E, 27세)

## (2) 불안정한 주거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도 청년들의 먹거리에 영향을 미친다. 취사조차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갈수록 심화되는 주거 불평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 대학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는 2009년 민자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건설업체에서 기숙사를 지어 운영하고, 업체는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은 학생의 생활보다 이윤을 위해 입주자 수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으로 기숙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수익을 위하여 식당을 운영하지만 역시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청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식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대학 기숙사, 고시원 등과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도 미래에 대한 주거 불안감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기숙사에 살았는데, 취사가 안 되었어요. 공용 취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기숙사가 갖춰야할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많이 내더라도 그게 불가능해요. 심지어 취사도구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벌점 매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옷에 싸서 숨겨오고 그랬어요. 신식 기숙사는 취사 시설이 오히려 더 없고요. 밥솥 같은 것도 몰래 들고 와서 먹고 그랬고, 설거지 할 곳도 없었어요. 세면대에서 해야 했고요. 기숙사 식당이 있지만 밥이 안 맞았어요. 외부 업체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먹을수록 속이 안 좋고. 그래도 용기 가져가면 1,000원에 공깃밥을 퍼워서 반찬을 따로 사서 먹고 그랬어요. 선택권이 없는 느낌이었죠. 기숙사를 나오니까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E, 27세)

**“저는 지금 운이 좋게 일하는 지역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를 사도 요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살림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이미 생존에 대해서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만해도 당장 본가를 나간다면 어디 가서 살지? 그럼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고민 먼저 들어요. 나가서 살만한 곳들도 굉장히 열악한 곳들이 많고요. 그 주위에 먹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요즘 애들은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아무거나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20대 청년들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납작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구조적인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 25세)

**“사실 건강한 먹거리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직접 요리하는 분들도 있지만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20대면 시간과 돈이 비교적 부족하잖아요. 다양한 면을 봐야지, 개인의 탓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D, 26세)

이야기 속에서 현재 청년 조합원들이 처한 노동, 주거 환경이 먹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한 먹거리는 현재 사회 구조 속에서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청년먹거리 문제의 원인은 단면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살림이 청년들의 먹거리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맥락에서 청년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가치를 주입하는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기반이 되어야 청년 조합원이 지향하는 먹거리 가치가 일상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다. 해결책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실천 방안, 정책, 사업은 청년들의 실재하는 삶에 기반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우선,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한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거나,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주거환경에 대안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다) 먹거리 가치의 실천, 비전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비거니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인식조사에 참여한 한살림 청년조합원들 중 다수가 비건을 중요한 먹거리 실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비거니즘을 생활에서 실천할 먹거리 지향이라고 인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비거니즘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한 참여자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참여자는 대학 안에서 사회변화를 위하여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찾게 되었고, 주변의 지지와 함께 비거니즘의 실천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으로써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 생태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저는 기후위기 문제가 제일 컸고요. 진짜 너무 급한 상황이라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A, 29세)

“당시에 대학가에서 청소노동자 이슈가 많았어요. (학내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엄청 문제였고. 청소노동자들이 (쓰레기가 특히 많이 나오는) 시험기간에는 새벽 5시에는 와야 하는 문제들을 보면서 쓰레기통 앞에서 음료를 들고 이걸 어디다 버려야 하지 고민하게 됐어요. 텀블러를 가져왔으면 저 스스로도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가방에 넣어 가면 되니까요. 누구나 한 번씩은 고민을 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시험기간 내에 도서관에 남은 사람이었으면 더 그랬을 거고요. 학생들 중에서는 직접 음료를 따로 버리자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도와서 같이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고민으로 텀블러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을) 실천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같이 해주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건도 실천해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E, 27세)

#### (1) 생명 개념의 확대

한 참여자는 ‘어느 것도 해하지 않겠다’는 삶의 방식을 지향하게 되면서 비거니즘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어디선가 소외당하고 착취당하는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일로서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한살림의 주요 지향과도 연결됨을 인식하고 있었다.

“내가 계속 동물을 죽이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물을 착취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데 **사실 모든 개인이 그렇듯 저도 어디선가 소외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이 싫은데, 그것이 모든 생명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비거니즘을 지향하면서 어떤 것도 착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인가를 해하고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것도 해하지 않겠다는 말이 굉장히 무거운 말이라는 것을 매일 느껴요.**” (B, 25세)

“한살림이 왜 비건을 다루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살림이 지향하는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왔던 주된 키워드가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이더라고요.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데 가장 부합하는 실천이 비거니즘이 아닐까요? 생명을 살리는데 경중을 우리가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떠오르는 게 동물권이었어요.**” (B, 25세)

## (2) 비건 실천과 한살림에 대한 기대

한 응답자는 기후변화나 생태 문제, 동물권이 이슈가 되고 있어 한살림과 같은 생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한다. 다른 응답자는 한살림의 지향과 비거니즘의 지향이 맞닿아 있지만 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시장에서 트렌드를 수용하는 정도로 비거니즘이 논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초창기 2017년~2018년 즈음, 비수도권 지역에 살다보니까 채식을 하는 저에게 먹을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나 한살림 같은 곳에 채식 물품에 대해 문의하고, 그걸 SNS에 올리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대기업이나 편의점 같은 데서 비건 식품을 내놓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기후변화나 생태 문제 혹은 동물권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한살림이나 다른 생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일반 마트에 비해 더 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D, 26세)

“비거니즘에 대한 문제도 한살림에서 얼마나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비거니즘에 대한 논의가 아직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절에서 진행하는 뷔페를 가면 거기는 콩고기를 사용해서 채식을 하는데, **그런 정도의 형태에만 머물러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B, 25세)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조합원들이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육식을 하지 않는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아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생명을 해하지 않는 먹거리로서 비거니즘을 지향하면서, 생명의 개념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재구성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물권, 노동권 등 먹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생명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인지하고, 그동안 착취를 당연시 해왔던 생산 시스템의 문제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한 대안적 먹거리 공동체로서 한살림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는 쉬운 단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삶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생명도 그렇고, 밥상에 당연히 다 올라와 있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 **생명이라고 하면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는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쉬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 (E, 27세)

“최근에는 노동자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올해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이주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들이 보도되었잖아요. 농산물이 한국인 노동자로부터만 재배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주 노동자 손을 거쳐서 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권 문제가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해결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해결의 노력도 없고요. 또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맞물리면서, 타자화되고 대상화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폭력 문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살림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먹거리를 이야기할 때, 노동권에 대한 이슈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먹거리가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향을 가져가야죠.” (B, 25세)

“아무리 국내산 먹을거리,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을 생각한 먹을거리를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또 한살림에서 생산자와 다 아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수확하고 하는 데에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동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권, 노동권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살림이 면밀히 살펴서 더 많은 조합원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생산자 누구누구 농부라고 요즘에는 이마트같은 대기업에서도 다 하더라고요. 상추를 누가 재배했는데, 이런 것까지 알겠는데 사실 그 농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아래에 수많은 노동력이 있을텐데, 그게 얼마나 제대로 또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한동안 이주 노동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강간을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추운 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자게 해서 아예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해서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B, 25세)

대안적 먹거리 실천 공동체로서의 한살림에 대한 기대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제안으로 이어진다. 이는 먹거리가 생산되어 소비자가 구입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다양한 생명의 모습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한다. 한살림은 이윤을 위해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여러 사업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지향하며, 먹거리 생산/소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안적 움직임들이 활발해지면 일반 기업과 한살림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품목 다양화, 새벽 배송을 할 경우에는 한살림이 조금 체질 개선 해보려고 하다가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노동자에 대한 이슈, 인권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노동자를 갈아서 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런 사업 형태의) 필연적 결과라면 저는 굳이 그 길을 한살림이 따라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분이라면 아마 새벽 배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품을 다양화하면서 혹은 새벽 배송을 하면서 한살림이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B, 25세)

“건강이라는 것이 저만의 건강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 건강한 먹거리란 저의 건강도 있지만 그것보다 동물을 생각하는 건강이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동물복지는 아니거든요. 동물복지는 동물의 건강을 위한다기보다 인간의 건강을 위한 거죠. 동물복지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키워서 깨끗하게 먹는 느낌이라, 생산환경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인 것 같아요. 동물복지는 제가 생각할 때 건강한 먹거리는 아니에요. 팜유도 소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채식이기는 하지만 동물의 삶에 영향을 안 좋게 미치잖아요. 팜유프리도 한살림에서 나오는 편이고, 소면이나 그런 것들도 다 팜유가 안 들어가요. 튀기지 않는 면 같은 것도 팔고 그런걸 보면 그래도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을 생각하는 것도, 환경을 생각해서였어요.” (E, 27세)

“개인적으로 선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발전시키면 차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 28세)

### (3) 외로움을 공유하는 ‘관계’

참여자들은 비거니즘을 실천할 때 느끼는 가장 주된 정서로 ‘외로움’을 꼽았다. 일상에서 번번이 실패하거나, 혹은 사회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낙인되는 것과 같은 경험들이 축적되면서도 지향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이유로 주변인들의 지지와 연대를 꼽았다. 특히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면서, 비거니즘 실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들과의 커뮤니티는 실천을 지속하게 함과 동시에,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사회에서 ‘이상한’ 존재로 규정된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지향을 설명하고, 옳은 것이라고 증명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비거니즘도 그렇다. 이들은 자신의 모습과 생각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를 통해 용기를 얻고 있었다. 비건을 실천하는 청년조합원들은 지인, 직장, SNS, 동아리, 커뮤니티 등 자신의 주변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주변에도 비건을 지향하게 된 지인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꼭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씩 들어가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건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B, 25세)

“제가 (비건을) 하면 주변에서도 같이 할 수 있게 되니까 부모님의 경우에도 너는 왜 고기를 안 먹냐고 물어보시면서도 안 먹으니까 다들 따라서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취직 한 회사에서 상사가 채식을 해서 채식하는 분위기가 편하게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런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A, 29세)

“(비건을 시작하고) 그 때 문제긴 했어요. 저 혼자 유별나다 이런 느낌. 진짜 이거 문제인데 하는 고민을 다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비건까지 이어졌는데, 다니는 학교에 비건 동아리도 없고, 주변에 채식 옵션도 없었어요. 그 때 SNS영향을 받았어요. **비건 계정을 만들고 나서 지원해주는 사람도 생기고, 혼자 하는 것보다 나도 비건 계정을 팔로우하다 보니까.**” (E, 27세)

“제 친구 중에 비건을 지향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요. (원래는 서로 의지하며 비건 실천을 했는데) 서로 졸업하는 시점도 달라지면서 매일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다보니 의존할 수 없어지더라고요. 비건을 지향하면서 생기는 고민이나 갈등에 대해서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낀 것 같아요. 저는 교육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데, 비거니즘과 교육을 연결 지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커뮤니티를 찾았어요. 그곳에서는 유아, 초등, 중등 교육 선생님들 그리고 양육자 분들이 학생이나 아이에게 어떻게 비거니즘 또는 동물권, 기후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당연히 생활 나눔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오래된 비건 분들, 저처럼 얼마 안 된 분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노하우와 고민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외로움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엄청 친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연대감이 생겼어요. ‘나 좀 덜 외롭다’하는 생각을 하죠. 오히려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은 비건이 아니고 비건 프랜들리한 분들도 아니니까 이질감을 느끼곤 했었어요. 그들의 여러 (비건 지향에 대한)질문에 답을 해야 하기도 했고요. 나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많은 말을 해야 했는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비건 프랜들리한 커뮤니티가 있으면 안전하게 다양하게 조합원들의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B, 25세)

참여자들은 앞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한살림에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에 한살림 안에서 청년조합원들이 주도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영역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가 잘 드러나지 않았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한살림의 지향이 자신의 가치와 맞닿아 있어서 조합원으로 참여했지만, 자신의 가치 지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한살림 내에 부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축산에 대해서 많은 이해관계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비건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지금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채식이고 비거니즘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라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득과 대화가 필요한거죠.” (B, 25세)

“채식에 대한 선호도는 20대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저도 올해 시작을 했는데, **한살림 조합원들 내에서 가볍게 비건 커뮤니티 또는 채식 제안 커뮤니티를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B, 25세)

“한살림에서 **동물권에 대한 이슈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비자분들과 생산자분들이 같이 모여서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B, 25세)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한살림이 이제 비건에도 관심을 가지는구나 생각했어요**. 원래는 채식만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채식이랑 비거니즘은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이제 비거니즘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굉장히 반가웠던 것 같아요**.” (B, 25세)

한편 비거니즘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기성세대와의 갈등에 대해 참여자들은 완전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혀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기성세대에게 비거니즘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한살림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한살림이 청년세대가 지향하는 가치에 관하여 세대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희 부모님도 완전히 납득하고 계시진 않아요. 오이나 해산물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식탁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게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관련 뉴스라도 나오면 이거 진짜 큰일이다, 문제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엄마 세대는 못 느껴도 우리는 다 느낀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부모님이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는 미래세대한테 (못할 짓이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A, 29세)

“오히려 연령 높은 분들은 유기농, 국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비건 쪽에는 무신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한살림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후위기 운동처럼 개인의 실천을 우리가 함께 해보자고 하는 캠페인을 비건에도 적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A, 29세)

#### (4) 비건과 한살림

위 응답들에서 청년 먹거리의 화두가 되고 있는 ‘비거니즘’을 실천한 계기, 비거니즘에 대한 생각, 자신의 가치를 실천할 공간으로서 한살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다. 참가자들은 개인이 마주한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출발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거니즘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어느 생명도 해하지 않겠다는 삶의 태도로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한살림의 주요 지향과도 연결된다. 하지만 이들은 한살림에서 비거니

즘이 주로 물품, 시장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비거니즘과 연결되는 한살림의 지향이 사업을 통해 잘 실현되기 위한 방법으로 한살림의 생산 시스템에서 소외되거나 착취되는 생명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동물권 외에도 노동권 등의 다양한 맥락들이 포함된다. 청년들은 비거니즘의 실천을 통해 생명의 개념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재구성하고 있다. 사회에서 ‘이질적’ 존재로서 일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주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상호적 지지를 주고받으며 지향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이는 개인의 생활 실천을 공동체 공통의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반생명적 모순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살림운동에게 고민과 실천이 확장되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라) 한살림 먹거리 운동의 한계

참여자들은 한살림운동에서 가능성을 찾기도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한살림을 바라보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청년조합원들이 한살림운동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치관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치해서, **쓰레기를 덜 만들 수 있는 그런 판매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가치관에 맞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B, 25세)

“이전에는 그냥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서 장을 많이 봤어요. 그 때 체감했던 것과 한살림을 이용할 때 체감하는 것이 달라요. 대안적인 먹거리를 조금 더 추구하는 곳, 가치 지향적인 먹거리를 추구하는 곳에서 소비를 할 때 훨씬 제가 원하는 주도적으로 기후위기, 생태계, 동물권과 같은 관심사에 가까운 소비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B, 25세)

“초록마을, 올가도 있지만 여러 매장을 살펴보면서 그래도 제 나름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대기업과 관련되지 않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B, 25세)

그러나 앞서 인식조사에서도 확인했지만, 대다수 참여자들이 말하는 실제 한살림에서의 경험은 물품 구입으로 한정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한살림도 마트 개념으로 봐요.” (A, 29세)

“제가 가입을 하고 받았던 안내는 신입회원 할인 쿠폰에 대한 것이었어요. 계속 한살림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계기는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특별히 추가 안내가 되지 않으면 알기 어

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입 회원에 대한 안내가 조금 더 주기적으로 자주 열린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B, 25세)

“가입 당시와 3년이 지난 지금의 인식 변화는 딱히 없어요.” (D, 26세)

이러한 인식은 기존 친환경, 유기농 유통업체들과 다른 한살림의 차별성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아 한살림이 언제든 대체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저한테는 사실 대체할 수단이 없는 것 같긴 해요. 한살림의 채식김치라든지, 살 수는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으로서는 대체할만한 곳이 딱히 없어서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없으면 안 될 존재라는 것은 과하고, **대체할 방안이 없어서 가는 곳인 것 같아요.** 대형마트에서 한살림을 대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나타난다면 또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 27세)

“저는 한살림 일찍 닫아서 이마트 간 적이 많아요. 이마트에도 채식주의 존이 생기잖아요. **한살림에 가치 차별점이 훨씬 많은 건 아니에요. 한살림에서 생산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생산자를) 아는 것 이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연결되는 느낌이 없기도 하고요.** 요새는 마트에서도 이름 공개도 많이 하고. (한살림이) 스토리 같은 것을 알게 된다고나 뭘 찾아보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차별점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밤늦게 마치면 당장 이마트로 달려가겠죠.” (E, 27세)

#### (1) 활동을 가로막는 장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한살림의 주요 키워드에서 자신의 먹거리와 생활 실천의 지향을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이자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가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한살림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응답을 통해 실제 일상에서 접하는 한살림은 앞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의 성격보다는 사업체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었다.

“사실 지금 한살림에서 어떤 생활실천운동을 하는지 제가 정확히 알거나 소식지를 읽고 있거나 하지는 않아서, 이미 충분히 하고 계시겠지만 **잘 몰라요.**” (B, 25세)

“저도 마찬가지로 한살림 활동이라고 했을 때, 주로 물품을 구입하러 많이 가는 편이에요. 활동은 한 기억이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진주 지역에서는 오히려 아이쿱이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연대체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D, 26세)

“지역활동을 하는지 체감을 못했어요. 주변에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한살림이 카톡 플친으로 광고를 보내는데, 새로운 물품이 나오거나 이벤트가 있으면 와요. 지역활동란은 없어요.

만약에 이런 곳에다가 띄워주면 '아 이런 활동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할인하는구나 생각은 하지만, 활동이나 모임은 몰랐어요.**" (E, 27세)

"20대 조합원의 커뮤니티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E, 27세)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조합원들에게는 활동과 모임이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존재했지만, 활동과 모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의 내용이 청년 조합원들의 생활 형태나 가치 지향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도 존재했다. 이미 내용이 정해져 있고, 그 내용이 자신의 가치 지향과 맞지 않는다면, 자신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 커뮤니티로서의 한살림에 대한 기대는 실현되기 어렵다.

"한살림 소식지를 가끔 챙겨오는 편인데, 한번 보고 쉽게 참여할 수 있을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F, 28세)

"대부분 아이들의 놀이 체험 같은 것들이 많아요. 주로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체험이나 김장 같은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장의 양념은 젓갈이 비건이 아니니까 참여하기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E, 27세)

"예를 들어 비건 김치를 무쳐본다고 하면 갈 것 같아요. 제 가치관이랑 같고 해볼 수 있고,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E, 27세)

청년조합원들의 기대감과 현실 참여의 괴리는 적극적 참여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한살림의 전통적 이데올로기가 청년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의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한살림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모성애적 역할의 강요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한살림 안에서 다른 조합원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규정된 성별 정체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질문에 대해 당혹감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앞서 먹거리 인식조사 결과에서 여성 청년조합원들이 건강에 비교적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참여자들은 여성이 가정 내 돌봄을 대부분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응답했다. 한살림에서 제시하는 좋은 먹거리는 막 어머니가 된 청년여성들에게 아이와 남편을 비롯한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모성애적 역할을 강요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현실 속에 처해있다는 점이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매장에 방문할 때) 가끔씩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 담론으로 통용되는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있냐 라든지.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당연히 악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요. **친한 마음에 그러시는 거겠지만 정상가족 규범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살림 내부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D, 26세)

**“가정 내에서 돌봄에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만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 모두를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건강 이슈에 집중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2030 청년 여성들에게 건강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1인 가구가 성별에 관계없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연령층이기도 하니까 자신의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건강에 조금 더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B, 25세)

## (2) 지역에서의 관계

한살림은 ‘지역’ 운동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지지와 연대의 공간으로서 커뮤니티는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다. 지역은 삶의 주체로서 개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다. 청년조합원들이 인식하는 삶의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의 해소와 가치 지향을 위한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 조합원 활동과 모임에서 청년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에게 지역의 의미는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비밀 언덕 만들기’ 프로젝트 사례와 같이 사회적 관계망을 지역에서 형성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역에 정말 자잘한 문제도 많고, 굵직한 큰 문제도 많은데 진짜 집에 올 때 자러 오는 느낌이 강해서, 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가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E, 27세)

“한살림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먹거리 문제는 지역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비밀 언덕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안면을 틀 수 있는 카페나 수선집, 하다못해 이웃이라도 자기 동네에 비밀 언덕을 만드는 워크숍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지역은 그런 것과 가까운 것 같아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재화가 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말 붙일 수 있고, 내가 말 붙였을 때 엄청 살갑진 않더라도, 대화가 주고받아지는 그런 것이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몇 년 살긴 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런 의문 같은 것들이 있어요.” (E, 27세)

한살림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운동을 지향한다면,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과 적극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살림은 앞서 확인했던 장벽을 극복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공동체로 자신의 문제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 내가 지향하는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도 있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연결될 지점을 찾고, 나만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해요. '나도 그래요'라는 말이 듣고 싶어서 하는 것 같거든요. 나는 이게 문제인데라고 이야기를 못하게 되면 왜인지 그 다음 시간에 조금 참여하기 싫어져요. 내가 그래서 엄청나게 큰 생활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이런 모임에 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죠. 예를 들어 집을 당장 구해야 해서 모임에 가기 힘들면 마음이 조금해지죠. 그래도 어쨌든 '나 집 구하느라 고생이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나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털어 놓으면서 연결되려고 모임을 하는 것 같아요." (E, 27세)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리는 것도 있고요. 대화도 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모임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F, 28세)

"내가 지향하는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에요." (E, 27세)

참여자들은 개인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전통적 공동체에서는 '나로 존재할 수 없음' 을 느껴왔다고 한다. 청년조합원들은 커뮤니티의 주요한 특성으로 조건 없는 수용과 지지를 꼽는다. '나' 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은 친밀함의 정도가 높은, 아주 잘 아는 관계는 물론이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관계에서도 가능하다. 조건 없는 수용이 가능할 때, 각자의 고민이 피상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무언가를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다.

"저에게 묻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 지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사나요?', '왜 이런 거를 고르나요?',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E, 27세)

"인정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받고 인정해 주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가족, 나의 집에서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살림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무언가를 지향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우선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이더라도 서로 많이 공부하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향하는 가치를 충분히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는데, 모르고서 할 수 있는 말들에 타인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가해의 입장이 된 적이 있고요. 그런 피해를 받는 입장이 된 적도 있어서 서로 많이 배우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개념적인 지식이 그냥 어떤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나는 따뜻한 사람, 따뜻한 것으로 인식되어서 피상적으로 머무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 25세)

### (3) 사회적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

하지만 이런 사회적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청년조합원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40~50대 가족 중심으로 확장해 온 한살림에서 그들이 낯선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이

다. 그들의 가치가 전통적 논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또 그런 지점들로 인해 청년조합원들은 계도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한다. 또한, 한살림의 활동과 사업이 주로 기존 세대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기도 한다. 청년조합원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한살림 안에서 활동 가능성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 연령대를 생각해보면 주로 4050 조합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특성을 고려할 때, 아직 자제분들이 중고등학생이시거나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군대를 다녀온 자녀를 두셨을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현재 군대에 가있는 자녀를 둔 조합원층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 **조금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C, 24세)

“네트워크라는 게 어느 정도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20대 조합원은 그런 측면부터 부족한 것 같아요. **드문 존재다보니까, 실무자 선생님들께서도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신기한 존재처럼 20대 조합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D, 26세)

“한살림 매장이 설립되는 공간이 그런 것 같아요. **20대가 많이 없는, 가족단위의 상권이 있어야 그곳에 매장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F, 28세)

“한살림이라는 공간에서 뭘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없고, 사실 미담<sup>2)</sup>도 한살림이랑 연결되어 있다가보다 그냥 미담이라고 생각해요. **한살림은 상품에 초점을 두는 운동이고, 가치 지향적인 운동을 한다고는 별로 못 느껴요. 다른 생협도 그래요.**” (E, 27세)

청년조합원들이 활동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청년조합원들이 한살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다양한 상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한살림이 되어야 한다. 조합원들이 한살림의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마음 맞는 조합원 3명이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조합원들의 작은 ‘비밀 언덕’ 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더하여 참여자들은 지역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있는 이들이라면 꼭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도 확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역사회 사람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청년들이 더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면 더 유입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F, 28세)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매장으로서의 인식이 강하니까** 게시판을 볼 수는 있어도, **조합원들이 모임을 할 때 한살림이 장소를 제공해주거나, 한살림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조합원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비밀 언덕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2)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청년 다양성 모임의 명칭이다. ‘미래를 위한 담론’의 줄임말이며, 개인의 삶의 고민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제의식을 확장하며 필요한 변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험하고자 한다.

**싶어요.** 조합원들 간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한살림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E, 27세)

“내가 추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3명이라도 모여서 그걸 말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놓으면 좋겠어요. **3명이 모이는 모임이 많이 만들어지면 모여서 사회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더 나은 사회일 것 같아요.**” (E, 27세)

#### (4) 내 삶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인터뷰 참여자는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시’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문제의식, 정체성을 검열하려는 사회의 시선에서 분리되어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자유로운 사유의 공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런 공간은 자신의 가치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만, 이것이 곧바로 일상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가 하고 있는 모임은 자유로워서 좋아요. 전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공간이라서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이 사람들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 내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 그게 문제야’라든지 검열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좋아요). **여러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계속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밥벌이로서 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저에게도 한계로 다가오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든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직접적으로 내 밥벌이가 되거나, 연결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일은 일대로 따로 계속 해오고 그러니까. 그런 자아가 계속...” (E, 27세)

“채용 사이트에서 공고 올라온 거 100개 정도 보면서 계속 나에게 맞는 조직이 뭐지?, 여긴 나와 맞나, 나랑 가치관이 맞나,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려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도 점점 노동 조건이 막 안 좋은데도 넣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공고를 또 찾아보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많은 가치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걸 일로 연결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딱 하나의 가치가 있어서 그 일을 찾기는 어렵고요. 비건으로만 딱 하고 싶은 것은 또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비건 식당 같은 거 요즘 공간 관리 매니저 같은 걸 찾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제품을 팔고 큐레이션 하고, 그 일이 맞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해요.” (E, 27세)

청년 조합원들의 활동에 대한 가치 인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활동과 가치 인정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 대한 본질적 문제제기이자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 3) 소결

인터뷰에 참여한 20대 한살림 청년조합원들은 개인적 삶의 먹거리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늘어나길 바라고 있다. FGI를 통해 자신의 삶의 문제와 연결지어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먹거리 인식이 노동, 비건, 여성 등의 의제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동안 ‘개인적인’ 문제로 규정지어 왔던 것을 기후위기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 드러나는 또다른 불평등을 마주하며 자신의 경험이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함을 확인한다. 이는 다양한 사회의제와도 연결되며, 대안적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청년을 비주체로 상정하며, 지원과 계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청년 혐오, 보편적 청년 정체성 규정에 따른 혐오·오해·낙인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도적인 활동과 담론 생산은 ‘기특한 행동’으로 규정되며, 사회를 변화시킬 주요한 내용으로 주목받지 못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왔던 먹거리 문제로부터 출발한 문제의식이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삶의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어 지며, 불평등과 억압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로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건(vegan)’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항의 언어로 연구에 참여한 많은 청년들에게서 언급되었다. 비건을 통해 청년 조합원들은 생명의 개념을 재구성해 나갔고, 개인의 삶 속에서 저항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생명운동 진영, 현재 사회 질서에 대한 저항과 봉기의 운동인 한살림에서는 그런 청년들의 담론이 적극적으로 펼쳐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제를 다루는 것이 나의 삶과 사회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살림을 이를 다룰 수 있는 공동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살림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인식에서 한살림에서 주어지는 의제에 공감할 수 있어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담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인지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조합원의 인식 속에 저항의 언어를 생산할 공동체로서의 한살림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살림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모성애적 역할의 강조, 청년들의 상황에 맞지 않는 국한된 활동은 청년 조합원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조합원들은 정체성 혼란의 상황도 마주하게 되는데 ‘안전한 마트’로 한살림을 인식함으로써 차별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인적인 경험인 ‘먹거리’ 의제는 여러 사회 의제를 드러내는 역할과 동시에 그 문제들을 연결하는 매개임을 확인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조합원들은 개인의 먹는 문제로 시작하여 사회 문제를 인식하며, 경험적으로 정립한 가치를 실천할 커뮤니티·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며, 각자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살림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이런 방법의 일환임을 조합원 가입 계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를 만들어갈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은, ‘살아가는 공간에서의 활동’의 필요성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청년에게 지역은 불안정한 주거와 노동환경으로 인해 삶의 공동

체로 인식되지 않는다. 청년 조합원의 지역활동 유입과 참여를 위해서는 이런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억압·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의 실천의 장으로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살림운동의 목적인 먹거리 논의의 사회적 확장(밥운동의 사회화)을 위해서 먹거리를 통해 연결된 이들이 서로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은, 개개인이 주체가 되는 운동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운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 4) 제언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살림 청년조합원들은 기존 한살림 가치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이는 한살림 조합원 가입과 물품 구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인식조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먹거리’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사회적 의제와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응답이 많은 반면, 한살림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는 물품 구입자로서의 역할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먹거리에 대한 인식과 한살림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살림에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정립한 먹거리 가치의 다양한 맥락은 삭제되고, 한정된 존재로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있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수다회와 이번 인식조사 결과, 먹거리와 관련해서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서 사회의 건강과 안전으로 확장되는 먹거리 인식은 한살림이 추구하는 생명살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점과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현재 한살림에서 청년조합원들은 물품 구입을 넘어서 운동의 주체로서 결합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살림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먹거리와 사회적 의제가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삶 속에서 확장해 나가고 있지만, 한살림이 그런 고민을 실현할 공동체로서 인식되지 않는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을 소비자 정체성으로만 가두어 두는 것은, 한살림 운동의 가능성을 한정짓는 것과도 같다. 30년 전 ‘유기농’은 그 자체만으로도 변혁적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대기업은 시장의 언어에 따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유기농을 브랜딩하고 있다. 한살림이 산업문명을 반대하고, 먹거리를 통한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자의든 타의든 시장 질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이런 경향으로 인해 청년들은 한살림이라는 공간 내에서 스스로를 소비자 정체성으로만 가두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실제로 청년들에게 한살림은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기업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한살림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현재 사회에 발생하는 여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능동적인 운동의 주체로서 결합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정체성으로서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주체적으로 먹거리 담론을 형성하는 능동적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필요하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체로서 청년들을 인정하는 것과, 청년을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으로 가두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 정체성으로 규정된 개인의 주체성은 오직 매장을 이용할 때, 물품을 구입할 때에 국한된다. 생산자 정체성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소비자 조합

원은 안전의 측면에서 물품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생산자는 그런 요구를 수행하는 수동적인 행위자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청년들이 생각하는 먹거리 문제 해결(생산과정의 문제)을 위해서는 서로의 삶이 먹거리를 통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과정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는지 인지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한살림이 문제시하는 생산과 소비의 분리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터뷰에서 한살림이라는 조직 안에서 청년 조합원이 소비자 정체성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두 가지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생산자/소비자라는 이분법적 조합원 구분이 자신을 소비자 정체성으로만 가둬놓는 경향을 만든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활협동조합’으로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 지면서 보이는 관계 속에서 먹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운동이다. 소비자는 소비의 방식으로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소비자 조합원이 되면 주로 물품 관련 소식을 받아보고, 물품을 이용하는 것이 주된 참여 활동이 되는데, 이것만이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물품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한살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물품 구입 외에 삶의 공동체로서 일어나는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는 접하기 어렵다.

물품 이용 외에도 조합원 모임, 의사결정 참여, 행사와 강좌 등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20대 조합원들에게는 정보의 격차와 참여의 물리적 한계가 발생한다. 정보의 격차는 소식지 혹은 휴대전화 알람으로 한살림 소식을 접하지만, 물품 안내 정보 외의 활동은 직접 조합원 모임 카페에 방문하지 않으면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서 발생한다. 이 카페마저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 물리적 한계는 기존의 한살림에 대한 참여 방식이 특정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미혼 1인 가구, 학생 혹은 직장인 조합원의 경우, 낮 시간에 일정이 있어 장을 보기 어렵거나, 낮에 운영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활동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청년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은 현저히 부족하다.

## IV. 세 번째 보고서 - “고민의 확장”

수다회, 먹거리 인식조사, FGI를 진행한 연구팀은 연구기간 동안 마주한 청년조합원들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 생활에 대한 경험 공유를 토대로 코로나 팬데믹, 노동, 주거, 젠더 등 다양한 의제들을 좀더 살펴보고, 한살림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현재 한살림의 한계와 극복지점은 무엇이며 또 향후 한살림에서 청년조합원들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한살림 전체 운동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 1.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간다고 말한다.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코로나 19사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누군가에게 여전히 재난이다.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평가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보이지 않는다.

백신의 보급과 치료제의 개발로 인해 코로나19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던 와중, 오미크론 변이의 발발은 국제적 불평등이 구체적인 형태로 실체화되어 다가왔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양적인 성장과 과학기술의 접목이 아니라, 평등한 분배와 민주주의의 도입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불평등은 곧 생존의 문제다. 이는 사회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자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이기도 하다.

코로나19사태는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드러냈다. 코로나19의 발생지는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한 가운데였다. 자본은 세계 곳곳을 잇는 교통망을 형성하기 위해 생태계를 파괴했다. 파괴된 생태계 속에서 타자, 미지의 존재였던 야생동물들은 그들의 서식지를 잃고 도시로 나와 우리와 접촉하였다. 이 만남의 영향은 교통망을 타고 세계로 뻗어나갔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 속 불평등한 관계와 닮아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폭력과 강압이 필수적이다. 식민지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서구 자본의 폭력적 채굴과 국가 내부에서 자본의 노동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과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적 폭력은 동의 없는 지배를 위한 동일한 양상의 폭력을 나타낸다.”<sup>3)</sup>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한 논리로서 노동, 여성, 자연, 장애 등 다수를 문명과 제도 밖에 위치시켜왔다. 이러한 기제는 주류 경제학, 가부장제, 선형-추출 경제, 능력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로 닮아있으며, 이로 인해 배제당하고 차별당하는 이들의 현실 또한 닮아있다.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이들이 비거니즘에 관심을 갖고, 비거니즘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장애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자신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정체성에 따른 불평등으로 인해 어떻게 폭력과

3) 기후정의포럼. 2021. 『기후정의선언』. 한티재. p27.

역압으로 전개되는지를 목격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기도 하였다. 특히 코로나 초기에 일어난 ‘이태원 클럽’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성소수자 혐오가 전면에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방역과 관련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비난과 혐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검사를 기피하게 만들어 오히려 방역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sup>4)</sup>. 하지만 혐오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후 20, 30대의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적 혐오는 청년에게로 돌려졌다. 청년들이 무분별한 소비로 인해 집단 감염을 유발한다는 언론의 선동과 낯조 속에서, 청년들이 집단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공간 중 하나인 열악한 노동환경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계층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삭제되었다. 앞서 살펴보듯이 정체성은 단일한 맥락으로 해석되어질 수 없다. 여러 맥락이 교차되어 형성된 정체성은 특정한 정체성에 국한될 수 없다.

킴벌리 크렌쇼(Kimberlé Williams Crenshaw)가 “인종과 성의 교차점 탈주변화하기”<sup>5)</sup>에서 제시한 교차성 개념은 “단일한 축으로 어떤 집단을 설명하려 뚫으로써 오히려 주변화되고 마는 어떤 사건들을, 여러 축의 복합적인 작용을 모두 주시함으로써 탈주변화 하는 시도”<sup>6)</sup>이다. 이 개념이 2010년대 중후반 국내에 소개되면서 분화되는 담론과 실천들을 통합해가는 시도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 시도들은 정체성에 대한 사유를 끊임없이 확장해나감에 따라 확장된 사유를 기반으로 사회적 의제를 재해석해나갔다. 허나, 주류 사회는 이러한 시도를 청년, 여성 등 단일한 축으로 설명하며 끊임없이 주변화 시켜왔다.

## 2. 청년

2020년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며 청년이 법적으로 처음 규정되었다. 이 법은 나이(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청년을 규정한다. 그러나 청년에게는 단순히 나이로 설명될 수 없는 다양한 맥락이 혼재되어 있다. 청년은 우리가 현재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근대에 발명된 개념이다.<sup>7)</sup> 청년은 19세기 후반 밀려들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적 문명을 만드는 사회적 주체로서 설정되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80년대 후반까지 이 경향은 이어져,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경제적으로는 수출 역군, 외화벌이의 선두로 주목받았다.

이렇듯 청년에게 우호적이었던 청년에 관한 담론은 민주화 이후 청년을 문제시하는 정서로 역전된다<sup>8)</sup>. 민주화 이후 청년은 역사적 주체로의 역할을 잃고 소비적 대상으로서 대중의 부정적 인식 속에 위치지어진다. 그 이후로 청년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체이기보다는 정치적 이권다툼 속에서 자신들의 지지층으로 포섭하기 위한 담론투쟁 속에서 소비된다. 이러한 흐름 속

4) 김정우. "성소수자 건강, 코로나19 이후." 『시민건강연구소』. 2020.05.21.

5) Kimberle Crenshaw.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ume 1989(Issue 1).

6) 박종주. 2018.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차성 분석." 『여성학논집』 35(1). pp163-183.

7)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1). pp179-212. "청년은 19C 후반 서구 문명으로부터 수입된 개념이다."

8) 이우창. 2016. "헬조선 담론의 기원." 『사회와 철학』 (32). pp107-158.

에서 ‘삼포세대’, ‘N포세대’, ‘춧불세대’, ‘공정세대’, ‘MZ세대’ 등 청년을 규정하기 위한 다양한 세대 담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세대 담론 속에서 청년은 항상 “기성세대가 책임지고 계도해야 할” 비주체로 그려진다.

청년은 흔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sup>9)</sup>’ 되는 과정을 전제로 설명된다. 이 과정은 “좋은 삶”의 궤도에 안정적으로 오르도록 돕기 위한 지표로 작용한다. 하지만 청년은 이 지표의 실천 공간인 학교와 가족이 오히려 가장 자신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과정임을 경험하며 성인기에 진입한다. 또한 이전 세대에 비해 학자금 대출 부담도 더 많이 지고, 빈곤율과 실업률도 높은 반면 부와 개인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고, 번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 전통적인 성인기적 지표는 이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전통적인 성인기적 지표가 가리키는 미래가 곧 유년기 학대,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집단 괴롭힘 등으로 고통스러웠던 과거이기 때문이다.<sup>10)</sup> 이러한 불안 속에서 청년들은 전형적인 삶이 아닌 “좋은 삶”을 새롭게 규정하고 만들어 나간다.

### 3. 노동

노동과정에서의 소외는 노동·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생산물, 동료, 그리고 인간 존재로부터의 소외를 불러일으킨다. 노동과정에서의 소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인은 통제력의 상실로,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노동은 자유로운 표현이고 삶의 즐거움이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생존의 수단을 구하기 위해 일하게 된다. 이때 개인의 개성은 노동을 통해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을 억압하는 요인이 된다. 노동은 내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강제적 요구에 의해 부과된 강제노동이 된다.<sup>11)</sup> 강제된 노동으로 인해 함몰된 개인은 비인격화되고 인간 그 자체로부터 소외된다.

노동에의 함몰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릴 때 나타난다. 이는 직무요구-통제 모형<sup>12)</sup>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직무요구-통제 모형은 직무긴장(job strain)을 직무요구와 직무통제력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높은 통제와 낮은 요구의 결합은 낮은 긴장(low strain)을 일으키고, 낮은 통제와 높은 요구의 결합은 높은 긴장(high strain)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불안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향할 수 없는 노동 환경은 개인에게 스트레스와 외로움 등 소외로 인한 감정을 느끼는 공간으로서 작동한다.

노동하는 청년조합원들은 불안한 노동 조건 속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안전하게 드러낼 수 없다는 경험을 겪기도 하며,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자신이 수행하는 노동이 연결되어 있

9)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Glance)에서 제시되는 개념으로 취업이나 교육 또는 훈련(NEET)을 하지 않는 젊은 성인(18~24세)를 파악할 때 활용된다. 이러한 지표는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교육 시스템이 개인이 노동 시장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한다(Education at Glance, 2021).

10) 제니퍼 M. 실바. 2020. 『커밍 업 쇼트 - 불확실한 시대 성인이 되지 못하는 청년들 이야기』. 리시울.

11) 칼 맑스. 1844. 『경제학 철학 초고』.

12) Karasek, R. A.. 1979. "Job demands, job decision latitude, and mental strain: Implications for job redesig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ume 24(2). pp285-308.

지 않다는 경험을 한다. 또한, 청년들이 놓인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은 곧 먹거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무 시간이 길어서 챙겨먹을 시간이 없거나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앞선 FGI 분석에서도 검토하였듯이, “먹거리 불안정은 휴일근무, 야간근무, 일의 빠르기와 같은 시간관련 요인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혼잡과 빠른 식사는 특유의 근무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적 압력의 결과로서, ‘비정상적 식사’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sup>13)</sup> 건강한 먹거리는 건강한 노동과 주거환경에서 나온다.<sup>14)</sup>

#### 4. 대학생들의 주거

2005년 대학이 민자기숙사<sup>15)</sup>를 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교육부는 「민자유치 교육시설 관리 지침」을 발표한다. ‘민간자본 유치로 대학의 시설(기숙사 등) 여건 개선과 동시에 건설경기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추진배경으로 삼고 있는 이 정책으로 인해 대학 내에는 수많은 민자기숙사가 설립되기 시작한다.

대부분 대학이 기존 기숙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신축하고, 그 과정에서 3~4인실을 1~2인실로 줄여, 입주비용이 이전 기숙사에 비해 크게 오르게 된다. 단순히 비용 상승뿐만 아니었다. 주방이나 세탁실, 기타 여가시설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구성하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수용하기 위한 효율적 공간이 목적이었던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통제했다. 민간자본이 이윤을 목적으로 기숙사 건립에 참여함에 따라, 집주인들의 월세비 담합 앞에 유일한 대안이었던 기존 기숙사는 시장에 잠식되어 갔다. 2019년 청년 부채 원인 1순위는 주거비였다<sup>16)</sup>.

대학생들은 취사할 수 없는 환경을 넘어 통제되고 전반적인 삶이 위협받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주거 문제 해결을 주된 요구로 삼게 된다<sup>17)</sup>.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에도, 독립에 대한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 5. 젠더

통상적으로 성은 여성과 남성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규정지으며 각 성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을 강요해왔다. 여성형과 남성형을 지칭하는 문법적 용어였던 젠더는 이러한 이분화를 거부하며 “1960년대부터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섹

13) 김선업. 2018.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먹거리 불안정." 『농촌사회』 28(1). pp219-261.

14) 강선일. 2021.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나온다." 『한국농정신문』 2021.05.30.

15) 민간자본으로 건립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기숙사를 의미한다. 대학교육연구소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2017년 대학 민자기숙사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3개 대학에서 민자기숙사 124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NARS. 2019. "대학 기숙사 현황과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 『현안분석보고서』 104호. 2019.12.31.

17)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2019. "전국대학생 설문조사."

스와는 구별되는 의미로, 사회문화적·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성적 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8). 1948년 시몬 드 보부아르가 그의 저서 『제2의 성』에서 제시한 문장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19)는 이 개념을 잘 드러낸다. 페미니즘 운동은 성별에 위계가 형성되고, 차이가 차별이 되는 이유는 사회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밝혀왔다.

젠더 개념은 “흑인은 흑인이다. 일정한 관계들 속에서 그는 비로소 노예가 된다. 면방적기는 면방적을 하는 기계이다. 일정한 관계들 속에서만 그것은 자본이 된다.” 20)는 맑스의 의견과, 또 “손상은 손상일 뿐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손상은 장애가 된다.” 21)는 김도현의 의견과 닮았다. 이는 모두 특정한 관계 속에서 차이가 곧 차별이 된다는 주장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차 사이에 있는 간성(intersex)과 같은 다양한 신체들의 존재는 억압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는 차이조차 이미 사회적인 가치 판단의 결과물임을 반증한다. 사회는 성별을 둘로 나누기 위해 이 다양한 차이들을 삭제시켜왔으며, 이 둘로 나누는 방식은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달라져왔다. “젠더는 명사가 아니다. 자유롭게 떠도는 일군의 속성도 아니다. 젠더는 언제나 행위이다.” 22)는 주디스 버틀러의 의견에서 이 “행위”는 경제, 문화, 정치, 시대, 공간에 따라 사회적으로 다루어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이 “행위”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정상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젠더가 구분되어왔다.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해방 이후 여성의 몸을 통제함으로써 재생산 과정을 조정하고자 한 국가의 주도로 형성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감소된 인구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는 젊은 여성에게 출산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을 요구하는 가족 문화도 이를 도왔다. 이 당시 여성들은 가난 속에서 피임 금지로 인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인공유산 기술을 선택하게 되었다.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1960년대에는 가족계획과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다시 개인과 가족의 차원으로 이전시켰다. 2000년대에 들어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자 국가는 '저출산 시나리오23)'로 사회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다시 여성들에게 돌렸다.24)

“ ‘사회적 안전망’ 이 없는 사회에서 개인이 기댈 유일한 언덕은 '사적 안전망'인 가족이었다” 25). 국가가 개인의 복지를 책임지지 않고 성장주의 속에서 모든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겼다. “가족은 근대화의 '해결사'였다” 26). 이렇게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과 여성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강조되는 과정은 정상가족과 여성성 개념을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게 하였다. 가족, 특히 여성이 양육과 출산의 주체로 규정되면서, 출산할 수 없는 몸은 비정상적으로 규정되게 되

18) 한국여성연구소. 2014. 『젠더와 사회 - 15개의 시선으로 읽는 여성과 남성』. 동녘.

19) 위 문장은 사실 의역에 가깝다. 원서의 문장 “On ne naît pas femme: on le devient”는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여자가 된다”에 가깝다.

20) 최민호 역. 1997.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출판사.

21) 김도현. 2019.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22) 주디스 버틀러. 2008.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3) 저출산→고령사회→생산인구 감소→노동생산성 저하→경제성장 둔화→사회보장 지출 증가→국가재정 파탄→젊은 세대의 부양부담 증가→세대 간 갈등 심화→사회 갈등의 격화

24) 나영. 2016. "재생산을 둘러싼 국가와 여성의 역동 : 시기별 변화의 양상과 시사점." 『비마이너』 2016.07.18.

25) 김희경. 2017. 『이상한 정상가족 -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동아시아.

26) 김덕영. 2014. 『환원근대 - 한국 근대화와 근대성의 사회학적 보편사를 위하여』. 길.

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이상한(Queer)” 몸인 성소수자를 비정상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었다. “국가 이성애주의(national heterosexuality)<sup>27)</sup>” 사회는 ‘정상적인 가족’ 형태가 국가의 기본 조직 단위가 되고, 가족형태를 통해서 개인의 삶이 사회적으로 승인된다.

## 6. 한살림

우리는 청년을 대상화·주변화를 해온 “낡은 기존의 사회, 경제, 정치를 혁파하고 생명의 질서를 지향하는”, “각성된 인간들의 창조적 활동”<sup>28)</sup>인 한살림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살림 방식(the way of hansalim)’의 운동모델은 그 자체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저항이고 봉기<sup>29)</sup>이다. 하지만 젠더가 명사가 아니라 행위이듯이, 한살림이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운동으로서 사회적 문제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청년-한살림

우리는 앞선 연구에서 청년조합원들의 다양한 입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가) 청년-청년

청년조합원들은 사무직, 20대 남성, 대학생 등 사회적으로 조명되는 일부 청년들의 이미지로 규정된 ‘청년’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데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의 청년들은 역사상 최고 수준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세대로 묘사된다. 이전 세대에 비해 선택권이 훨씬 더 많이 주어지며 물질적 풍요 속에서 본인의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는 식이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에게 자신들이 추구했던 충실함, 의무, 헌신보다 자기 계발과 행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선택할 수 없는 문제보다는 선택의 자유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개인의 문제에 주목하는 과정은 “개인적”인 것으로 환원된다. 동시에 처음으로 이전 세대에 비해 가난한 세대라는 점 또한 비가시화된다.

특히 국가의 청년정책 속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 정체성은 이 괴리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뉴딜 일자리는 “사업기간동안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에 취업하도록”<sup>30)</sup> 하는 사업으로, 청년 뉴딜 일자리는 특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에 부합하지 않는 청년의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청년 고용대책이다. 그러나 현실 속의 뉴딜 일자리 참여자들은 취업률 지표 중심의 정부 정책 기조 속에서, 그리고 현장 노동자와 직장체험 교육생이라는 경계 사이에서 ‘일을 주지 않

27) L. Berlant. 1998. "Sex in Public-Lauren Berlant and Michael Warner Critical Inqui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ol. 24(2). pp547-566.

28) 한살림모임. 1989. 『한살림선언』. 한살림.

29) 모심과살림연구소. 2018. 『한살림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한살림.

30) 서울특별시. 2022.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상시 모집 안내."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politics/user/detail/13301>)

아서 소속감이 없다, 일의 수준이 낮아서 자존감이 떨어진다,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sup>31)</sup>. 청년이라는 생애주기적 정체성은 오로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의 궤도에 진입했을 때만 응원받는다.

#### 나) 청년-매장-한살림

한살림 조합원은 물품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합원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소속감이 형성된다. 조합원 간 소통은 이러한 소속감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일상에서 이러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로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의 빈도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매장이자 매장이다. 청년은 한살림 매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한살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청년조합원들은 한살림이 지향하는 가치 소비, 대안 먹거리 추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살림과 관련한 정보를 오직 ‘물품 할인’에 대해서만 안내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은 한살림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물품 할인 외에 사회실천활동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다보니 한살림은 마트 개념으로만 인식된다. 한살림운동의 지향과 정체성은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한살림은 사회실천활동의 장이지만, 한살림의 사업이 조합원에게 다가서는 방식은 자본주의 경제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년조합원들이 접하는 정보는 할인 쿠폰뿐이며, 매장 이용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소식지가 2022년 휴간을 결정하게 되면서 접촉면은 더욱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 한살림 방식의 사업모델이 처음 기획한 “창조적 활동”은 불가능해졌다. 자본주의 경제원리의 한계에 갇힌 협동조합은 안전한 마트에 불과하다. ‘안전한 마트’로서 한살림은 이제 안전한 마트를 지향하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위치한 일반유통시장에서 끝없는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전국적으로 친환경 유기농 생산지가 늘어나면서 생산지 간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판로를 두고 경쟁이 격화되고, 또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독자 브랜드화 전략과 장소마케팅 전략 같은 영역자산(territorial assets) 개발전략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국가나 자본이 원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영역적 통치성(territorial governmentality)이 발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생협유통 자체가 규모화, 관행화되고 그로 인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반 시장유통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관행적 생산-소비관계와 서로 혼종적인 성격을 보여준다.”<sup>32)</sup>

청년조합원들은 한살림이 생산자들의 이야기를 물품에 담고, 채식이 가능한 물품을 구성함으로써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이러한 방식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수용하면서 대체 가능한 선택지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살림의 차별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차별화는 지금처럼 한살림이 ‘안전한 마트’로서 물품 공급에 대한 서비스로 국한된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살림을 대체할 서비스가 점차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삶에 대한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두며 활동하고

31) 문세경. 2020.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노동자인가, 직장체험 교육생인가?” 『오마이뉴스』 2020.11.02.

32) 허남혁. 2009. “생협 생산자 조직의 생산-소비관계 변화.” 『농촌사회』 19(1). pp161-211.

있는 만큼 생활정치운동적 성격이 강한 조직이다. 하지만 이번 먹거리 인식조사 뿐만 아니라 FGI에서도 참여자들은 생협을 생활정치의 차원보다는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FGI에서 언급된 진주아이쿱생협은 “무상급식 유지 및 진주의료원 폐쇄 반대운동을 통해 시민생활의 공공성을 지키는 활동을 전개했다. 진주아이쿱생협은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응하는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생활정치운동을 확대 강화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진주아이쿱생협은 ‘시의회 모니터링단’을 통하여 진주시의 예산 사용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한다.”<sup>33)</sup> 진주에 거주하는 한살림 청년조합원은 진주아이쿱생협을 연대체적 활동성이 있는 공간으로 경험한 것에 비해 한살림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다른 매장과 구분되는 차별점 중에 하나는 ‘민주적 참여’다. 하지만 성장 그 자체와 큰 조합으로 바뀐 구조가 조합원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오랫동안 관성처럼 이어온 문화적 전통은 여성이나 청년과 같은 일부 조합원의 참여를 막는다. 조합원의 관여가 결핍하거나 약해지면 그 조직은 쇠퇴한다. 정상 가족 등 청년의 상황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으로 구성된 참여 방식은 참여를 가로막는다.”<sup>34)</sup>

현재 한살림 전체 조합원의 70% 정도가 조합원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장·육아·가사 부담으로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조합원의 약 13%는 조합원 활동 정보를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다.<sup>35)</sup> 여기에 청년조합원은 추가적인 장벽이 중첩된다. 청년조합원들은 ‘정상가정’을 중심으로 설계된 한살림 사업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한 활동들이 부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한살림 매장에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침묵하는 조합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sup>36)</sup> 이러한 경향은 조합원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식 및 참여 방식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할인 정보만이 제공되는 현실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 다) 청년-젠더-한살림

앞선 인식조사에서 청년조합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여성이 가정 내 돌봄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현실과 1인 가구의 경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현실 속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가정의 책임을 증가시킴에 따라,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대와 통제 등 가정폭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sup>37)</sup>. 게다가 보육·교육 등 공공의 공백으로 여성에게 전가된 가사·돌봄 노동 또한 심화되었다. 그동안 가사·돌봄은 여성에게 전가되어왔

33) 허준기, 김정석, 신유리, 조현연(2017), 「‘생활정치’로 바라본 생활협동조합: 진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14, pp296-327.

34) A.F.레이들로. 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알마.

35) 모심과살림연구소. 2018. "전국한살림조합원의식조사 결과분석보고서."

36) 모심과살림연구소의 위 보고서

3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제4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와 젠더폭력-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등교 중단, 실직 등이 늘어나고, 경제적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갈등과 폭력이 증가해 가족상담 요청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있음."

고, 이 노동들은 시장경제 영역 밖에 존재하며 무급 노동으로 비가시화되었다. “자본주의체제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가사/돌봄을 여성의 일로 규정하면서 이를 ‘사랑’, ‘모성애’, ‘집안일’로 부르며 무급노동을 강요했다” 38).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공동체” 39), “‘한그릇의 밥’은 자연의 젓” 등 모성애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한살림이 제시하는 ‘좋은 먹거리’는 막 어머니가 된 청년 여성에게 아이와 남편을 비롯한 가정의 건강을 챙겨야 하는 모성애적 역할을 강요하는 기제로서 작용되기 쉽다. 한살림은 가사·돌봄에 대한 개인화를 넘어 가사·돌봄을 사회화하고, 공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분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 라) 청년-지역-한살림

청년은 떠돈다. 대표적인 청년인구의 지역이동 요인은 일자리와 소득이다. 여기에 주거비용이 이동을 촉진시킨다<sup>40)</sup>. 게다가 “교육과 취업 준비를 위한 인프라, 다양한 일자리 기회가 집중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 오히려 더 빈곤할 가능성이 큰 ‘빈곤의 역설’”<sup>41)</sup>이 나타난다. 지역청년의 삶의 만족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이 청년의 지역 정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sup>42)</sup>. 불안정한 일자리와 치솟는 주거비용으로 인해 떠도는 청년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자원을 갖기 어렵다.

지역은 삶의 주체로서 개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다. 하지만 청년조합원들은 지역을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시에 한살림을 관계망으로 인식하지도 않았다. “비밀 언덕이 있어야 기댈 수 있다. 누구나 의지할 곳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시작하거나 이룰 수가 있다.”<sup>43)</sup> 청년조합원이 언급한 ‘비밀 언덕 만들기’ 프로젝트 사례는 지역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들을 언급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년 공동체 사업은 청년이 수혜를 받는 대상이고 지역에서는 자원들을 동원하여 청년을 돕는 그림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사실은 일방적 과정이 아니라 상호적인 과정<sup>44)</sup>임을 인식해야 한다.

## 2) 청년-비건

먹거리운동 진영에서는 청년들이 먹거리에서 건강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취향과 선호에 따라 ‘시켜먹는다’는 얘기를 흔하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짧음은 더 이상 특권이 아닌 ‘착취의 명분’이 돼버린 사회”<sup>45)</sup> 속에서 먹거리를 직접 해먹을 수 있는 충분한 주거 공간을 갖지 못하고, 불안정 노동에 시달려 늦은 시간에 퇴근해서 장을 보고 사먹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

38) 사회변혁노동자당. 2021. "가사/돌봄사회화 공동선언문."

39) 한살림 소개 [http://www.hansalim.or.kr/?page\\_id=2](http://www.hansalim.or.kr/?page_id=2)

40) 김리영. 2019. "지역 간 특성차이가 서울시 청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연구』 35(2). pp49-57.

41) 변금선·이혜림. 2021.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서울연구원』.

42) 엄창욱·노광욱·박상우. 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대구지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6(3). pp259-283.

4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44)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9. 『지역교류형 청년일자리사업 모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연구』.

45) 변진경. 2018. 『청년 휴밥 보고서』. 들녘.

지 않다는 맥락은 삭제된다. 청년이 놓인 상황에 대한 이해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시키는 이러한 경향은 상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시혜적 관계로 이어진다.

다른 세대에 비해 청년세대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먹거리 담론은 비거니즘이다. 우린 비거니즘을 통해 형성되는 청년들의 인식, 경험, 관계망 등을 통해 한살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자세히 제시해보고자 한다.

비거니즘은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저항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비인간동물에 대한 폭력과 착취가 “먹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상 전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채식주의자vegetarian”와 구분된다. 채식이 개인의 선호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동물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의 저항으로서 규정될 때, 비거니즘이라고 호명할 수 있다.

생명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는 서로 닮아있다. 여성들은 ‘자연화(naturalized)’ 되고 자연은 ‘여성화(feminized)’ 되며<sup>46)</sup>, 동물은 노동계급의 일원인 동시에<sup>47)</sup> 노동계급은 동물의 일원이다<sup>48)</sup>. 동물은 장애화(disabled)되는 동시에, 장애인도 동물화된다<sup>49)</sup>. 비건을 실천하는 이들은 광범위한 영역의 생명에 대한 폭력과 착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이는 곧 담론과 실천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비건은 단일한 맥락의 운동으로 볼 수 없다.

서구 육식사회에서 남성은 ‘남자는 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통념에 따라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음식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체성을 확보했다. 반면, 여성은 자기희생을 통해 남성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면서 정작 자신을 돌볼 수 없었다. 육식문화는 남성의 언어를 반영해 형성되었고, 반대로 채식문화는 여성 수동성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여성이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현실과 다르지 않다.<sup>50)</sup>

육식이 주류인 문화 속에서 채식을 하는 사람은 곧 ‘여성적인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에 따라 전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채식주의자는 나약하거나, 우유부단할 것이라는 등의 여성적 이미지를 요구받는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의를 거절할 것으로 기대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피고, 동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sup>51)</sup>

채식주의자들이 편견과 혐오 속에 갇히게 되는 대표적인 논란이 바로 비타민B12 결핍이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며 동물성 단백질에 의해서만 얻어진다고 교육된 이 영양소는 사실 된장, 청국장, 템페, 고추장, 맥주효모 등의 발효식품, 일부 버섯류(표고버섯, 노루궁뎅이, 빨나팔버섯, 살구버섯, 느타리버섯, 검은곰보, 그물버섯, 큰갓버섯 등), 김, 파래,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에 함유되어있다<sup>52)53)</sup>. 하지만 이 과학적 사실은 비가시화된다.

46) Karen J. Warren. 1996. “The Power and the Promise of Ecological Feminism of Ecological Feminist.” Volume 12(2). Indiana University Press.

47) 제이슨 W. 무어. 2020.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 자본의 축적과 세계생태론』. 갈무리.

48) 채효정. 2020. “탈육식.” 『워커스 사전』.

49) 수나우라 테일러. 2020. 『집을 끄는 짐승들 - 동물해방과 장애해방』. 오월의봄.

50) 캐럴 J. 아담스. 2018. 『육식의 성정치』. 이매진.

51) 터리스 휴스턴. 2017. 『왜 여성의 결정은 의심받을까?』. 문예출판사.

52) 광충실 외. 2008. “한국 장류, 김치 및 식용해조류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상용 식품의 비타민B12 함량 분석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41(5). pp439-447.

53) Watenabe F 외. 2014. “Vitamin B12-Containing Plant Food Sources for Vegeterians.” Nutrients. 6.

청년조합원들이 동물에 대한 착취를 인식하게 된 경험은 모든 생명에 대한 착취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비인간동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인권 의식을 확장하는 계기도 된다. “비건의 핵심은 거부가 아니라 연결에 있다.”<sup>54)</sup>는 말처럼 비거니즘은 그동안 타자화되었던 이들을 연결하고 단절된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알려진 간디에게 채식주의에 대해 영향을 준 인물은 헨리 솔트다. 헨리 솔트는 동물에 대한 폭력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던 영국 사회에서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기제를 문제 삼으며 1894년 『동물의 권리』를 저술했다. 그는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 의식과 감정은 없으며 인체를 포함하여 모든 동물의 신체는 한낱 기계의 조합일 뿐이라는 데카르트적 사고방식을 지적하며 사람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폭력의 피해자와 자신이 동족이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최대한 심리적 거리 두기가 악을 실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물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솔트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인간과 인간 외 동물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큰 차이로 보는 ‘차이의 시선’을 거둘 것을 제안한다.

솔트는 동물과 인간이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할 자유를 지니지만, 오직 다른 인간의 똑같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그러하다”라는, 따라서 “모든 인간은 특정하게 제한된 자유만을 지닌다”라는 허버트 스펜서의 권리 원칙이 동물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공동체의 영속적인 필요와 이익을 위해 동물에 대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카르트적 사고방식의 한계를 넘기 위해 차이의 시선을 거둘 것을 제안하는 헨리 솔트의 동물권 담론은 기계론적 모형의 이데올로기가 기반하는 데카르트 철학을 비판하며 전일적 관점을 추구하는 한살림 선언의 정신과 닮아있다.

청년조합원들은 한살림의 생명운동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 가치를 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비거니즘 등 각자의 담론을 통해 주체적으로 생명운동의 가치를 재구성해나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에만 국한되었던 생명 개념을 비인간 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로 확장하고, 한살림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국내 생산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생산의 범주를 노동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노동자(이주 노동자, 운송 노동자 등)로 확장했다. 단순히 채식선택권 정도의 논의에 그쳐있는 한살림의 논의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청년들은 한살림이 제시하는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는 명제에 대한 이해를 넘어 그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고민하고 있다.

청년조합원들은 지인, 직장 분위기, SNS, 동아리, 커뮤니티 등 자신의 주변 관계로부터 가치를 실천하는 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피해 현장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문제의식이 형성된 계기를 통해 우리는 가시화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비건을 지향하는 이들은 주변의 지지와 함께한다는 유대감을 통해 실천에 있어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다.

탈육식에 대한 주장과 축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특정한 산업의 전환에 있어 일어나는 갈등은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대두되듯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에너지전환의 전 단계에 걸쳐 사회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sup>55)</sup>는 비판을 볼 수 있다. 한살림은

pp1861-1873.

54) 김한민. 2018. 『아무튼, 비건』. 위고.

생산자와 소비자, 다양한 세대가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갈등을 해소할 가능성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 한살림 내에서 비거니즘을 제도·사업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논의 테이블, 비건 프로젝트, 비건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비건을 실천하는 청년조합원들은 비건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위해 비건 커뮤니티 또는 채식 제안 커뮤니티 지원, 개인 실천 캠페인, 생산자 간담회 등을 제안했다. 현재 한살림에서 비건에 대한 논의는 식이소수자 혹은 취향·선호의 영역으로 여겨져 물품에 대한 선택권 정도에 머물러 있다. 비거니즘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소비자 운동의 영역으로 소비자 운동은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의제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한살림은 비거니즘을 통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체로 나아가갈 새로운 경로를 찾을 수 있다.

## 7. 대안의 모색

한살림운동의 목적인 먹거리 논의의 사회적 확장(밥운동의 사회화)을 위해서 먹거리를 통해 연결된 이들이 서로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은, 개개인이 주체가 되는 운동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운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나 앞선 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청년이 커뮤니티로 진입하는 과정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요인들을 극복하고 청년에게 환대와 우애의 공동체로서 한살림이 다가가기 위한 방향과 대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노동의 가치

홍기빈은 ‘경제’ (經濟)가 ‘경세제민’ (經世濟民)에서 나온 점, 그리고 ‘economy’의 어원이 그리스어 ‘oikonomia’ (오이코노미아)라는 점을 주목하여 경제란 원래 살림/살이, ‘타인을 살리고[살림] 내가 살아가는 것[살이]’의 문제이지만 근대 시장경제에서 살림/살이의 문제가 돈벌이 경제에 의해 삭제되거나 대체된다고 언급한다<sup>56)</sup>. 여성주의 경제지리학자인 J. K. 김슨-그레험(J. K. Gibson Graham)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도 비자본주의적 경제형식들이 경제활동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언급한다<sup>57)</sup>. 마릴린 웨어링(Marilyn Waring)은 1988년도에 「여성이 계산된다면(If Women Counted)」를 발표하여 여성의 무보수 기여가 국가경제 데이터에서 어떻게 누락되는지, 그리고 여성이 가족과 경제에 기여한 바를 판단하는 데 이 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sup>58)</sup>.

55) 이효은. 2021. "충청남도의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사례와의 비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3(2). pp187-216.

56) 홍기빈. 2012.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지식의 날개.

57) J.K. 김슨-그레험. 2013.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알트.

58) Marilyn Waring. 1988. *If Women Counted: A New Feminist Economics*. Harpercollins.

장애학자 김도현은 위의 논의들을 중점으로 사회의 경제 메커니즘이 “어떤 활동이 가치가 있으면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활동이 대가를 받고 있으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 59)로 여겨져 왔음을 언급한다. 즉, ‘활동→가치→대가’가 아니라 ‘활동→대가→가치’였다60). 그리고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은 인정이 선행된다는 것인데, 활동에 대한 ”인정의 주체는 자본이고, 기준은 자본을 위한 잉여가치의 생산”이었다61)62).

김도현은 자본에 의한 불인정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 개념으로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시민노동’ 63) 개념에서 일차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온 ‘공공시민노동’을 제안한다. ‘공공시민노동’에서 기준은 오로지 “ ‘해당 개인이 지닌 현재의 조건 및 능력’에 비춰볼 때 그 활동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물질적·정신적·정서적 삶에 기여’하는가이다. 이 기준을 따른다면, 현재 매우 심각한 정신장애 혹은 인지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최중도의 와상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들의 활동 자체를 노동으로 인정하게 된다. 여기서의 노동이란 해당 개인이 지닌 현재의 조건과 능력에 비추어 판단되며, 그의 생존(활동)은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정서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도 학업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일정 수준의 급여를 단계별로 지급받게 되는데, 학생들의 학업은 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64). 이 개념은 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실현되기도 했다65).

사단법인 유스보이스에서 운영하는 ‘TMI 프로젝트’ 66)도 위와 같은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TMI 프로젝트>는 ‘Time for My Inside’라는 ‘청소년들의 나를 찾는 시간’을 주제로 만든 사업”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미디어로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오로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아이들에게 창작 비용인 ‘유스페이’를 지급”했다. 참가자들은 “나는 뭐고, 나는 뭘 해야 하고’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뭘 해야 할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주고 같이 답을 고민하는 그런 어른이나 친구들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거나, “학교에서는 해달라고 해도 (충분한) 인원이 차야하고 학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해준다. 이걸 학교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 67)이라고 언급한다. 전통적인 공동체, 학교나 가정에서는 대안적 삶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대안적 공동체를 통해 개인의 활동에 대한 인정과 그에 따른 대가가 주어지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59) 김도현. 2018. "만인을 위한 통합적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한국장애학회』 2018(1). pp45-58.

60) 김도현. 2019.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61) 백승욱. 2017. 『생각하는 마르크스』. 북콤마.

62) 미담. 2012. 『사회에 균열을 내는 사람들』. 모심과살림연구소.

63) 울리히 벡. 1999.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생각의나무.

64) 김도현(2019), 앞의 책.

6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0년 노동의 기록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취업박람회. ([http://sadd.or.kr/policy\\_data/14877](http://sadd.or.kr/policy_data/14877))

66) "Time for My Inside (TMI Project) 1기 모집 공고." <https://www.notion.so/Time-for-My-Inside-TMI-Project-1-49bccae8f284235add9a17f75929db8>

67) 닷페이스. 2022.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시간 주고 돈 줬더니 생긴 일." <https://www.youtube.com/watch?v=5wVEfBEPK1E>

‘미담’은 2020년부터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모임이다. 청년조합원들은 이 공간 안에서 지지와 환대의 공간으로서 안전함을 느끼고 활동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모임을 통해 실제로 가치를 형성해나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활동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먹고 살 수 있는, 살림/살이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경험한다. 이때 환대는 경제적인 조건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조합원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가 노동으로 실천되기를 원한다. 이는 한나 아렌트가 나눈 세 차원의 인간의 활동 중 노동과 작업, 행위를 일치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은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의 세 차원으로 나눈다.<sup>68)</sup> “인간은 노동과 작업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 보다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의미 있는 행위는 ‘정치적 행위’를 뜻하며, 이 행위를 통해 고유한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사적 영역’의 존재를 넘어 서로 함께 존재하며 살아가는 ‘공적 영역’의 존재가 된다.”<sup>69)</sup>

김도현이 ‘공공시민노동’을 통해, 유스보이스가 ‘TMI 프로젝트’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노동의 기준을 통해 한살림의 활동을 살펴보자. 공공시민노동은 노동의 기준으로, 개인이 지닌 현재의 조건과 능력,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정신적·정서적 가치와 의미를 제시했으며, TMI 프로젝트는 오로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노동으로 인정했다. 지난 1월에 공유된 ‘한살림 공유부엌’ 활동은 “먹거리돌봄, 먹거리나눔, 식생활교육, 관계를 만드는 공동식사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 나며,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망을 넓혀가”고 있다.<sup>70)</sup> 이 활동 안에서 개인의 가치와 활동은 인정되고, 공간이 제공된다. 하지만 아직 한살림은 비거니즘을 통해 생명사상을 재구성해나가고, 한살림 내에서 배제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환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청년 조합원들의 정치적 행위를 노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 2) 청년커뮤니티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1997년 출판한 『Politics of Friendship』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을 특정한 정체성으로 동일화시키면서 발생하는 폭력을 지적하고, 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동질적인 개인들을 적대시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폭력을 드러내고 있다.<sup>71)</sup> 데리다는 이러한 관점을 1995년 그의 저서 『The Gift of Death』에서 “모든 타자는 절대적 타자이다”<sup>72)</sup>라는 문장을 통해 분명히 한다. 데리다는 이러한 타자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환대로 응답하는 “공동체 없는 공동체”를 제시한다.<sup>73)</sup> “우리는 환대에 의해 사회 안에 들어가며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장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환대는 자리를 주는 행위이다. ...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68) Arendt, Hannah. 1958. The Human Condition.

69) 박병준. 2014. "한나 아렌트의 인간관 - 인간의 조건에 대한 철학적 인간학적 탐구." 『철학논집』 38. pp9-38.

70) 한살림 장보기. "'한살림 공유부엌', 이런 활동을 했어요." 2022.01.28.

71) Derrida, J.. 1997. Politics of Friendship. London: Verso Books.

72) Derrida, J.. 1995. "The Gift of Deat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73) Derrida, J. Évelyne Grossman & Translated by Thomas Clément Mercier. 2019. "The Truth That Hurts, or the Corps à Corps of Tongues: An interview with Jacques Derrida." Parallax 25:1. pp8-24.

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된다” 74).

청년조합원들은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의제에 대한 연결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동시에 전통적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관계망이 단절되어 있음을 경험한다. 청년조합원들은 커뮤니티 안에서 좋았던 경험으로 서로에 대해 선입견 없이 지지해주었던 경험을 꼽는다. 커뮤니티의 주요 특성은 조건 없는 수용과 지지이다. 이러한 지지나 나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은 친밀함의 정도가 높은, 아주 잘 아는 관계는 물론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관계 안에서 도 일어날 수 있다. 반대로 가족 관계 안에서조차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75)

서로에 대해 판단 없이 지지한다는 것은 “그의 고유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성을 가진다. 한나 아렌트의 논의를 빌리면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이전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유일하며, 미래에도 도래할 수 없는 고유성을 가진 점에서 고유하다. 고유함은 타고난 것이면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그의 세계는 유일한 것이며 그만이 구축해온 역사와 서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76). 그러나 청년이 추구하는 고유의 “좋은 삶”은 전통적인 공동체 안에서 재생산되어온 전통적인 “좋은 삶”의 지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공동체(커뮤니티) 개념은 “일정한 지리적 영역,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지닌다77). 하지만 일자리와 주거의 불안정으로 인해 일정한 지역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며 항상 경계에 머무르는 청년들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를 형성하거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갖기 어렵다. 물리적 경계를 기반으로 동질성을 규정함으로써 맺어지는 관계들에서 배제된 청년들은 오히려 ‘친밀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다. 돌봄과 친밀성의 관계를 포착하고 돌봄, 친밀성, 상호존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운동이 이러한 경향을 반증한다78).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특징을 일부 갖기도 하지만, 탈-전통적 공동체로서 청년 공동체의 특징을 지닌다79).

우애와 환대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한살림80)은 탈-전통적인 공동체 지표를 제시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고 있지는 않다고 청년조합원들은 인식하고 있다. 40~50대 가족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한살림에서 청년은 낯선 존재로서 인식되고, 이것을 다시 청년들이 재경험하며 한살림 안에서 청년의 활동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

청년들은 공공 공간과 같은 공유 자원의 공유, 지역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 주도성을 커뮤니티에 진입하기 위한 주된 조건으로 꼽았다. 지역 안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참여하는 이들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

74)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75) 송하진·안수정. 2019. "서울의 청년커뮤니티 작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듣는연구소』.

76) 이호연·유해정·박희정. 2021. 『당신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코난북스.

77) Hillery, G..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pp111-123.

78) 가족구성권연구소. 2021. "'가족다양성'을 넘어 차별과 불평등해소를 위한 가족정책을 제안하며."

79) 송하진·안수정(2019) 위의 글

80) 모심과살림연구소. 2018. 『한살림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한살림.

은 조합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에 살아가는 누구나, 사회적 관계망이 필요한 이들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폐쇄성이 아닌 개방성으로 조합원 활동의 지평을 넓혀 나갈 때, 한살림은 우애와 환대의 공동체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8. 나오며

### 1) 개인의 서사로 시작하는 청년 다양성

지금까지 ‘청년 담론’은 주로 외부에서 청년이 마주한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현존하는 청년 담론은 신자유주의로 인해 불안정해진 노동 환경, 실업 증가, 취업난 등 어려움에 청년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주로 다룬다. 그 안에서 청년의 삶의 방향은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사회적 불평등과 경쟁 속에서 자신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편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삶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청년 담론은 매우 제한적이다. FGI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사회적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보편적 청년 정체성은 청년들에게 공감되지 않으며 오히려 개인의 삶과 괴리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기존에 주어지는 청년 담론이 아닌,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을 때 더 다양한 논의 지점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은 사회에서 제시하는 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에서 스스로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먹거리 논의가 먹는 주체의 삶에만 집중되지 않고, 먹는다는 행위 외에도 다양한 삶의 문제들과 교차되는 지점들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회적 매개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 참여자는 직접 먹거리 관련 프로젝트나 활동을 꾸려가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먹거리의 사회적 의미와 관계를 재조명하고 새롭게 구성하고자 했다. 이런 활동과 논의를 통해 개인의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먹거리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까지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었다.

각자의 삶에서 사회적 담론이나 문제의식을 발견할 때, 그 이야기는 자신과 분리될 수 없으며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이처럼 청년 담론은 사회 환경과 조건에 의해 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축소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그 문제를 개인이 삶에서 마주했을 때 만들어내는 서사와 실천들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한살림에서도 청년의 먹거리 담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보편적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고, 청년 조합원들이 각자의 삶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적 의제를 고민하고자 실현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이들이 스스로 담론 형성과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2) 청년의 참여 보장

현재 청년들은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한살림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겪는다. 청년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한살림에서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제

안하며 실행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 이사 할당제, 청년위원회 설립 등의 시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처럼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실제 청년들의 삶에서 그동안 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 청년 조합원의 정치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조직으로의 변혁이 필요하다. 한살림 전체 차원에서 각 조직별로 청년 활동가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청년들이 정치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면, 청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논의들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먹거리는 다양한 삶의 맥락이 교차하는 의제이다. 청년들은 자신이 삶에서 겪고 있는 노동 소외, 열악한 주거 환경 그리고 마주한 여러 억압들을 기반으로 먹거리 담론을 확장하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제, 인간중심적 사고, 신자유주의적 사고 등으로 인해 삭제되는 개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 ‘동물권’, ‘이주 노동자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죽음의 문명에서 벗어나 생명의 본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한살림운동과의 지향과도 맞닿아 있다. 흔히 여러 조직, 단체들에서는 청년들의 문제를 의제화하기 위하여 ‘청년 지원 정책’,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전략’ 등으로 청년이 다룰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는 청년을 대상화하는 방식이며, 가능성을 제한한 논의 테이블은 삶의 문제를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다양한 삶의 맥락을 삭제해버린다. 먹거리를 포함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가 억압의 기제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양한 삶의 맥락이 조직에서 의제화되고, 이를 위해 개인의 삶과 필요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문제들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다시, 청년 한살림

FGI를 통해 20대 조합원들이 자신의 가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것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가 기존 사회에서 형성된 문법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발생한다. 한살림운동은 “나부터 삶의 가치와 생활양식의 올바른 전환을 통한 실천”<sup>81)</sup>을 하는 대안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에서 청년들 또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외롭게 고립되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면서 함께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운동의 지속성과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삶에서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삶이 분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FGI를 통해 확인했듯, 청년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단순히 청년을 지원하는 공동체가 아닌, 청년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를 구상하고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한살림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한살림은 청년의 개인적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먹거리 지원에서 더 나아가, 한살림의 청년-되기가 필요하다. 청년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한살림을 운영하고, 삶의 위협을 온몸으로

81) "한살림 운동의 지향" [http://www.hansalim.or.kr/?page\\_id=14](http://www.hansalim.or.kr/?page_id=14)

경험하고 있는 세대가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기획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한살림의 청년-되기란 청년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이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한살림운동의 가치와 조직, 그리고 실천 방식을 재구성하고, 내용을 확장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 << 에필로그 >>

※ 연구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연구진들이 가진 고민을 자유롭게 기술한 글입니다.

## 한대와 돌봄의 공간으로서 한살림과 청년

대다수의 연구는 객관화, 추상, 표준화 등의 과정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어떠한 현상을 인식하는 틀이 선행할 때 가능하다. 이는 재인식<sup>82)</sup>의 과정으로, 대상을 이미 정해진 것으로 인식하는 과정이다. 재인식에서는 대상과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확실하다. 미리 규정되고 정의된 대상을 확인하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상들은 원활한 재인식을 위해 수동적이고 고정된 존재로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인식조사에 이어 FGI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연구 과정은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대상이 우리를 인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 연구 주체인 연구자들은 능동적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했으며, 대상인 참여자들은 수동적으로 설계된 연구에 참여했으나 실제 우리의 연구에서는 수동과 능동의 이분법이 작동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능동적으로 새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도 했으며, 청년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는 주체로서 한살림을 다시 재조명하기도 했다. 우리는 청년들이 한살림을 그저 하나의 소비 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동시에 청년들이 한살림이 공동체로서 성격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주기도 하였다. 우리는 서로를 규정짓기보다는 드러냈다. 참여자의 수동성은 똑같이 연구자의 능동성이었다<sup>83)</sup>.

우리의 연구는 기존의 인식 틀로 재인식하는 과정이 아닌, 인정의 과정이었다. 특히 청년이라는 정체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삶을 인정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인정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제한된 상호작용을 넘어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이는 먹거리 청년 네트워크로 이어졌다. 이 연구는 해방적 연구로서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재하는 목소리를 드러내었다. 연구팀의 한계로 개개인의 삶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기존의 인식 틀에 국한된 해석을 내놓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 한계는 앞으로 참여자들이 조합원으로서, 혹은 정치적 시민으로서 즉, 주체로서 담론을 재구성해 나감으로써 극복될 것이라 믿는다.

청년들이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필요로 드러난다. 집이라는 물질적 필요 이외에도, 자신에 대한 지지와 인정을 동반한 포괄적 의미에서의 “돌봄”의 공동체에 대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를 부상시키는 배경에는 전통적인 결혼과 임금노동에 기반한 근대적인 삶의 모델에 대한 회의가 존재한다. 공동체의 유지에서 핵심적인 윤리는 차이에 대한 인정과 의사소통 민주주의이다<sup>84)</sup>.

청년 공동체의 특징인 차이에 대한 인정과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청년들은 개인의 내면적 요소에 집중하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다. “고통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이념과 이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sup>85)</sup>한다. 이러한 과정이 하나의 권리(right to narrative)<sup>86)</sup>로 자리잡을 때, “내가 겪은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82)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인식과 재인식을 구분한다. 그는 “우리는 사물들을 재인식하기는 한다. 그러나 결코 그것들을 인식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한다. 들뢰즈는 서구의 철학 전통이 구축한 인식 방식이 재인식의 방식임을 지적하며, 그 너머의 형이상학을 논하고자 한다.

83) 메를로-퐁티. 남수인 역. 2004.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동문선. p200.

84) 김혜경. 2017.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한국사회학』 51(1). p155.

85) 박은희. 2020. “재난의 기록, 기억을 통한 연대.” 『인문연구』 92. pp59-94.

86) Slavoj Žižek and Glyn. 2004. “Conversation with Žižek.” Cambridge, UK: Polity Press. p141.

이를 해결하고 회복하도록 공동체에 해결과 회복을 요청할”<sup>87)</sup>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한 듣기”<sup>88)</sup>를 통해 수행된다. 이 “철저한 듣기”는 청년 공동체에서 무조건적인 지지에 의해 수행된다.

개인이 겪은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해결하고 회복하도록 공동체적 해결이 동반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돌봄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관심(carelessness)이 지배하는 곳, 즉 돌봄이 부재한 곳이다. 돌봄은 “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돌봄을 받는 사람이 가진 역량을 주체적 능력과 웰빙을 계발하는 데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며,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에는 “상호지원, 공공 공간, 공유 자원과 지역 민주주의”<sup>89)</sup> 4가지 핵심 특성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다시, 환대에 의한 사람으로서의 인정, 이에 따른 자리/장소에 대한 권리, 가치에 대한 인정/대가로 설명될 수 있다.

청년 먹거리 인식조사를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형성해나가는 청년 먹거리 담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한살림이라는 공동체가 이 담론을 가치로서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살림이 환대의 공간인가에 대해 돌아켜볼 수 있었다.

“말들에 내재한 관점을 주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어진 관점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말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인 것은, 어휘 수의 제한보다는 말이 체화한 관점의 한계에 더 크게 기인한다.”<sup>90)</sup> 30년 전에 제안된 생명 개념은 30년 전의 맥락에서 나왔다. 30년 사이 우리는 IMF와 세월호, 촛불집회와 페미니즘 리부트, 기후위기와 코로나19를 겪었다. 그 30년 동안의 변화는 관점의 변화를 유발했다. 한살림은 「한살림선언」 30주년을 맞아 선언을 다시 쓰기보다는 기존의 가치를 확대·재생산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별도의 결의문<sup>91)</sup>을 냈다. 하지만 기존의 가치가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재생산된다는 것은 기존의 ‘타자’를 확대·재생산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청년 조합원들의 경험과 인식에서 확인해볼 수 있었다.

87) 이호연·유해정·박희정. 2021. 『당신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코난북스.

88) 리타 샤론 외. 2021. 『서사의학이란 무엇인가』. 동아시아.

89) 더 케어 컬렉티브. 2021. 『돌봄선언』. 니케북스.

90) 김태우. 2021. 『한의원의 인류학』. 돌베개.

91) “지난 30년 한살림선언은 70만 조합원과 2천여 생산자들의 자유선언이자 생명살림의 실천강령이었다. 한살림운동은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이들과 손잡고 '세상의 밥이 되는 한살림'으로 나아갈 것이다.” 2019. “한살림선언 30주년 특별결의문.”

## 청년의 '이중성'에 대하여

### 먹거리로부터 멀어진 청년

청년과 먹거리는 멀기만 한 관계일까. 흔히 청년은 먹거리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과연 청년들은 먹거리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가난하면 굶어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은 단순히 물질의 결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고, 이 역량은 곧 경제적·정치적 행위로 이어진다. 즉, 가난이란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없다고 여겨져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역량이 분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밥을 먹고 살 수 없는 것은 개인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먹는 문제의 책임이 온전히 개인에게 떠넘겨져 있을 때, 내가 먹지 못하는 문제는 나 자신만의 문제로 환원된다. 이는 청년들이 스스로 먹거리를 정치적 권리로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 자신의 가난은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이고, 그런 부끄러움으로 인해 나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라도 하면 '그게 뭐 자랑이냐'고 질타를 받기 일쑤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것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구조에 의한 것이라면, '가난'을 이유로 밥을 굶거나 불건강한 식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 먹는 문제를 '권리'라고 인식할 때, 우리는 사회의 불평등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먹거리를 챙기지 못하는 원인이 청년 개인에게 추궁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청년은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만 여겨진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은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교육을 받는다.(다른 말로 가스라이팅 당한다) 청년에게는 '돌을 씹어 먹어도 괜찮을 나이다', '지금은 컵라면 한 개로 끼니를 때워도(혹은 굶더라도) 행복한 미래를 위해 버티라'는 말이 너무 쉽다. 최근 20~29세 청년 6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4명(37.1%)은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1주일에 한두 번 이상 끼니를 못 챙겼다'는 응답도 27.1%나 있었다.<sup>92)</sup> 대학생들은 등록금, 교통비, 주거비 등 막대한 경제적 부담 속에서 가장 먼저, 또 손쉽게 줄이는 지출항목으로 '식비'로 꼽기도 한다. 학교에 다니기 위해 대학에 내야 하는 돈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식비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다.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우리는 미래가 아닌 현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 우리 사회가 청년을 대하는 방식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은 현재 자리에서 주류가 될 수 없다. 청년은 논의 테이블에 늘 등장하지만, 청년들만이 있는 자리에 초대되거나, 이미 깔아놓은 판에 '좋은 그림'이 되기 위해 소비된다. 먹거리 진영도 다르지 않다. 최근 먹거리 진영에서 청년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지만, 주로 '빈곤', '소비문화' 등에 대해서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친다. 청년의 삶은 전시될 뿐, 삶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

92) 주애진. 2021. "굶으며 버티는 청춘...청년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어"." 『동아일보』 2021.04.19.

작되지 않는다.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로 서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그들은 ‘기특한’ 청년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채, ‘먹거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도 있구나’ 하는 기성세대의 만족감에 봉사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 활동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이들보다 보편적 청년, 즉 사회에서 ‘청년은 ~하다’고 규정된 청년의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다. 논의의 장에서 청년은 언제나 궁핍하거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과소비하고 사치를 부리는 존재, 이 둘 중에 하나다. 이는 청년을 한없이 가르치고 베풀어야 하는 존재로 가둔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먹거리 정책은 주로 ‘지원’과 ‘교육’에 한정된다. 청년들의 삶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필요는 삭제된다.

### 시장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최근 CJ기업에서 서울시 은평구와 함께 민관협력 사업으로 ‘먹거리 가치 소비를 위한 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sup>93)</sup> 은평구에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여 폐기될 수 있는 상품을 기부하고, 못난이 농산물이 포함된 꾸러미를 전달하고, 쿠킹 클래스를 제공해 자립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먹거리 가치’란 무엇인가? 좋은 먹거리를 일시적으로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먹거리 가치일까? 가까운 먹을거리, 건강한 먹을거리, 안전한 먹을거리 등의 먹거리 가치가 일방적으로 청년과 연결되려고 할 때, 청년들의 삶이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사업의 대상이 될 때 청년들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기보다 국가와 기업이 제공하는 먹거리 가치를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

많은 단체들이 청년의 먹거리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먹거리 지원 사업’은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청년들이 건강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며 직접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재하거나,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서 밥을 거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먹는 문제는 삶의 형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연결되는 삶의 필요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 정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가공식품을,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 밥을 거르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간편식을, 지원하는 형태로만 진행된다. 이런 사고의 구조 속에서 먹거리 보장 논의는 협소해질 수밖에 없고, 청년들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실제 필요는 주변화된다. 청년들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는 먹거리 빈곤 이면에 어떤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드러내어 함께 논의해야 한다.

### 청년을 단일한 정체성으로 규정짓는 운동은 한계가 있다

청년들은 경제적 불평등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을 모두 겪고 있다. 하지만 청년을 단일한 정체성으로 규정하게 되면 다양한 불평등의 모습이 사라진다. ‘청년들은 이럴 것이다’라는 의식 속에서 청년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과소비, 사치를 부리는 청년의 모습으로 규정되는데, 이를 보편적 청년의 모습으로 상정한다면, 청년들은 교화가 필요한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청년이

93) CJ 제일제당. 2021. "CJ제일제당, 청년 1인 가구에 ‘착한 먹거리’ 지원... ‘나눔 냉장고’ 캠페인 진행." 2021.11.01.

있는 반면, 먹거리 빈곤으로 인해 밥을 굶은 청년도 있다. 하지만 먹거리 보장을 논의하는 조직에서도 규정된 정체성으로 청년들의 삶을 바라본다. 그들의 논의에서는 건강한 식생활에는 투자하지 않지만 아이패드와 같은 비싼 전자기기는 쉽게 구매하는 청년이 등장한다. 아이패드를 구입하는 것의 이면에는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 시장과 인간관계에 진입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n명의 청년에게는 n개의 삶이 있다’는 말처럼, 청년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한살림과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에서도 관찰자의 시각으로 청년의 삶을 해석하고 단일한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의에서 많은 청년들의 삶을 제거하고 배제한다. 또 이런 논의 속에서 ‘우리의 지향’이 절대적으로 옳지만 그걸 따르지 않는(혹은 못하는) 청년은 가르침과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형성되고, 이는 청년의 참여를 주저하게 하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청년은 시장의 주된 소비 계층으로 주목받으며, 자신의 신념에 따른 소비를 통해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로서 규정된다. 하지만 모든 청년들이 그런 소비 문화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치적 주체로도 서지 못하고 있다. 한살림에서 청년 조합원들이 먹거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들은 한살림은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도 한다.

한살림에서도 청년 조합원에 대한 논의는 주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로서 대상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의 고민을 기반으로 여러 활동들을 펼쳐 나가는 공간으로써의 한살림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등한 운동의 주체가 아닌 관찰되어지는 대상, ‘기특한’ 청년으로만 존재한다. 이는 청년 생산자가 규정되는 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라는 한살림운동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사실상 소비자와 생산자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존의 운동 가치에서 서로의 역할을 논의할 때가 아닌, 운동의 주체들 각각이 두 정체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 자신을 가두어 두었던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아야, 서로의 삶이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운동의 가치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해야, 비로소 운동이 ‘나의 이야기’가 되며 삶과 운동을 분리시키지 않으며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

## 청년이 이중성을 가진다고 말하는 당신에게

지금까지 한살림은 조직의 가치에 청년들이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해오며 청년들을 수동적 존재로 위치하게 했다. 조직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청년들의 담론은 항상 배제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담론은 한살림이 극복하고자 했던 ‘죽임의 문명’을 ‘살림의 문명’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데 새로운 실마리로서 제시될 수 있다. 청년을 동등한 운동의 주체로 인정할 때, 이 담론은 비로소 논의되어 질 수 있다.

최근 비건이 청년들의 주요 먹거리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은 이를 동물권, 기후위기, 페미니즘, 노동 등 다양한 담론을 내포한 운동의 의미로 생각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사회는 비건을 기호와 선택권의 문제로 바라본다. 먹거리로 인해 파생되

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는 청년들의 삶을 위협하는 억압의 기제와 공포로 형성되었지만, 청년들은 멈추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고민한다. 이처럼 먹거리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담론에만 갇히지 않고 더 확장해 나가면서 사회변화를 만들어갈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논의가 가능할 때, 운동의 영역과 내용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종종 청년에 대해 ‘비건에는 관심이 많지만, 환경에는 관심이 없다’ 또는 ‘환경에는 관심이 많아 포장재에 대해 문제제기하지만, 건강하게 먹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중적이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과연 이것을 ‘이중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데에는 환경 외에도 페미니즘, 동물권과 같은 담론이 존재할 수 있고, 환경 문제는 삶의 위협으로 다가오지만 건강하게 먹는 일에 대해서는 개인적이거나 사회구조적인 이유로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의 고민에 기반이 되는 삶의 맥락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이중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들을 동등한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청년들이 중요시하는 담론 외에도 생명운동의 지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청년을 이중적이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어떤 삶의 맥락에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이야기 하며, 연결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한살림에 필요한 것은 이중적 존재로서 청년을 ‘관찰’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 비밀 언덕이 필요한 당신에게

거대한 사회불평등 속에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인간의 탐욕으로 비취지는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은 사실 불확실한 삶에 대한 불안함에서 기인한다. 주체적인 삶보다 사회가 규정하고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그 안에서 실제 나의 행위와 가치의 괴리를 느끼며 우리는 점점 소외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개인들의 이야기가 모일 수 있는 장을 형성해야 한다. 누구나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고, 저마다의 실천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그동안 나만의 이야기만으로 머물렀던 작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문제로 확장되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고, 이로부터 촉발되어 우리를 둘러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균열을 내는 대안적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다.

먹거리를 매개로 한살림이라는 공간에 함께하게 된 우리는 먹거리에 대한 담론을 먹는 ‘나’의 문제로만 한정시키지 않는다. 더 나은 사회, 사회구조로부터의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위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본인의 책임을 외면한 채 ‘너희를 착한 소비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자본의 논리를 주체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덮어진 문제를 드러내고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실현할 조직으로서 한살림을 인식하고, 능동적 주체로 참여할 때 내 삶과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했던 외로움과 두려움의 감정을 공동체를 통해 해소하고,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마음 맞는 세 사람이 만나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만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가치를 공유하고 삶을 나누는 세 사람이 연결된 것 자체만으로 자신의 삶에는 작은 희망이 생겨날 것이다. 한살림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다양한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삶과 가치가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 누구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비밀 언덕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 <참고 문헌>

### 단행본

- 기후정의포럼. 2021. 『기후정의선언』. 한티재.
- 김덕영. 2014. 『환원근대 - 한국 근대화와 근대성의 사회학적 보편사를 위하여』. 길.
- 김도현. 2019.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 김태우. 2021. 『한의원의 인류학』. 돌베개.
- 김한민. 2018. 『아무튼, 비건』. 위고.
-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 김희경. 2017. 『이상한 정상가족 -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동아시아.
- 더 케어 컬렉티브. 2021. 『돌봄선언』. 니케북스.
- 리타 샤론 외. 2021. 『서사의학이란 무엇인가』. 동아시아.
- 메를로-퐁티. 남수인 역. 2004.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동문선.
- 모심과살림연구소. 2018. 『한살림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한살림.
- 백승욱. 2017. 『생각하는 마르크스』. 북콤마.
- 변진경. 2018. 『청년 휴밥 보고서』. 들녘.
- 수나우라 테일러. 2020. 『짐을 끄는 짐승들 - 동물해방과 장애해방』. 오월의봄.
- 울리히 벡. 1999.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생각의나무.
- 이호연·유해정·박희정. 2021. 『당신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코난북스.
- 제니퍼 M. 실바. 2020. 『커밍 업 쇼트 - 불확실한 시대 성인이 되지 못하는 청년들 이야기』. 리시울.
- 제이슨 W. 무어. 2020.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 자본의 축적과 세계생태론』. 갈무리.
- 주디스 버틀러. 2008.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 채효정. 2020. "탈육식." 『워커스 사전』.
- 최민호 역. 1997.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출판사.
- 칼 맑스. 1844. 『경제학 철학 초고』.
- 캐럴 J. 아담스. 2018. 『육식의 성정치』. 이매진.
- 터리스 휴스턴. 2017. 『왜 여성의 결정은 의심받을까?』. 문예출판사.

- 한국여성연구소. 2014. 『젠더와 사회 - 15개의 시선으로 읽는 여성과 남성』. 동녘.
- 한살림모임. 1989. 『한살림선언』. 한살림.
- 홍기빈. 2012.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지식의 날개.
- A.F.레이들로. 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알마.
- Arendt, Hannah. 1958. The Human Condition.
- Derrida, J.. 1997. Politics of Friendship. London: Verso Books.
- J.K. 김슨-그레험. 2013.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알트.
- Marilyn Waring. 1988. If Women Counted: A New Feminist Economics. Harpercollins.

## 국내외 학술논문

- NARS. 2019. "대학 기숙사 현황과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 『현안분석보고서』 104호. 2019.12.31.
- 곽은희. 2020. "재난의 기록, 기억을 통한 연대." 『인문연구』 92. pp59-94.
- 곽충실 외. 2008. "한국 장류, 김치 및 식용해조류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상용 식품의 비타민B12 함량 분석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41(5). pp439-447.
- 김도현. 2018. "만인을 위한 통합적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한국장애학회』 2018(1). pp45-58.
- 김리영. 2019. "지역 간 특성차이가 서울시 청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연구』 35(2). pp49-57.
- 김선업. 2018.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먹거리 불안정." 『농촌사회』 28(1). pp219-261.
- 김정우. "성소수자 건강, 코로나19 이후." 『시민건강연구소』. 2020.05.21.
- 김혜경. 2017.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한국사회학』 51(1). p155.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1). pp179-212.
- 박병준. 2014. "한나 아렌트의 인간관 - 인간의 조건에 대한 철학적 인간학적 탐구." 『철학논집』 38. pp9-38.
- 박종주. 2018.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차성 분석." 『여성학논집』 35(1). pp163-183.
- 변금선·이혜림. 2021.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서울연구원』.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9. 『지역교류형 청년일자리사업 모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연구』.
- 송하진·안수정. 2019. "서울의 청년커뮤니티 작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듣는연구소』.
- 엄창욱·노광욱·박상우. 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대구지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6(3). pp259-283.
- 이우창. 2016. "헬조선 담론의 기원." 『사회와 철학』 (32). pp107-158.
- 이효은. 2021. "충청남도의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사례와의 비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3(2). pp187-216.
- 허남혁. 2009. "생협 생산자 조직의 생산-소비관계 변화." 『농촌사회』 19(1). pp161-211.
- 허준기, 김정석, 신유리, 조현연(2017), 「'생활정치'로 바라본 생활협동조합: 진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14, pp296-327.
- Derrida, J. Évelyne Grossman & Translated by Thomas Clément Mercier. 2019. "The Truth That Hurts, or the Corps à Corps of Tongues: An interview with Jacques Derrida." Parallax 25:1. pp8-24.
- Derrida, J.. 1995. "The Gift of Deat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llery, G..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pp111-123.
- Karasek, R. A.. 1979. "Job demands, job decision latitude, and mental strain: Implications for job redesig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ume 24(2).
- Karen J. Warren. 1996. "The Power and the Promise of Ecological Feminism." Ecological Feminist.
- Kimberle Crenshaw.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ume 1989(Issue 1).
- L. Berlant. 1998. "Sex in Public-Lauren Berlant and Michael Warner Critical Inqui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ol. 24(2). pp547-566.
- Watenabe F 외. 2014. "Vitamin B12-Containing Plant Food Sources for Vegeterians." Nutrients. 6. pp1861-1873.

## 자료집

가족구성권연구소. 2021. "'가족다양성'을 넘어 차별과 불평등해소를 위한 가족정책을 제안하며."

모심과살림연구소. 2018. "전국한살림조합원의식조사 결과분석보고서."

미담. 2012. 『사회에 균열을 내는 사람들』. 모심과살림연구소.

사회변혁노동자당. 2021. "가사/돌봄사회화 공동선언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2019. "전국대학생 설문조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0년 노동의 기록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취업박람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제4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와 젠더폭력-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한살림. 2019. "한살림선언 30주년 특별결의문."

Slavoj Žižek and Glyn. 2004. "Conversation with Žižek." Cambridge, UK:

Polity Press. p141.

## 뉴스 기사

강선일. 2021.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나온다." 『한국농정신문』 2021.05.30.

나영. 2016. "재생산을 둘러싼 국가와 여성의 역동 : 시기별 변화의 양상과 시사점."

『비마이너』 2016.07.18.

문세경. 2020.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노동자인가, 직장체험 교육생인가?" 『오마이뉴스』 2020.11.02.

서울특별시. 2022.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상시 모집 안내."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politics/user/detail/13301>)

주애진. 2021. "끓으며 버티는 청년...청년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어"."

『동아일보』 2021.04.19.

##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닷페이스. 2022.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시간 주고 돈 줬더니 생긴 일."

<https://www.youtube.com/watch?v=5wVEfBEPK1E>

대학교육연구소. 2017. "정보공개청구." <http://khei.re.kr/post/2126>

한살림 소개 [http://www.hansalim.or.kr/?page\\_id=2](http://www.hansalim.or.kr/?page_id=2)

"한살림 운동의 지향" [http://www.hansalim.or.kr/?page\\_id=14](http://www.hansalim.or.kr/?page_id=14)

한살림 장보기. "'한살림 공유부엌', 이런 활동을 했어요." 2022.01.28.

CJ 제일제당. 2021. "CJ제일제당, 청년 1인 가구에 '착한 먹거리' 지원... '나눔 냉장고'

캠페인 진행."2021.11.01.

"Time for My Inside (TMI Project) 1기 모집 공고." <https://www.notion.so/Time-for-My-Inside-TMI-Project-1-49bccae8f284235add9a17f75929db8>

OECD. 2021. "Education at Glance."




## 함께한 사람들

진아 789wlsdk@gmail.com  
@jin\_ah789

주석 cxh6573@naver.com  
@sn\_coment

기현 bae04092@gmail.com  
@kh.kathe



# 현재를 위한 답론

한살림 청년 조합원 먹거리 인식 조사

